metro
메트로 2015년 1월 13일 화요일 제3134호 www.metroseoul.co.kr

스마트 정의선?

정몽구 회장이 이끄는 현대차그룹이 판매량 800만대 시대를 열었다. 현대차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으로 세계 판매량 5위 자동차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글로벌 자동차업계가 1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불과 50년이 안 되는 역사로 일궈냈다. 후발주자로서는 기적같은 성과다.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4위권 자동차 제조사로 진입하고 900만대 시대를 열기 위해선 스마트카와 프리미엄 고성능차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앞으로 현대차그룹을 끌고가야 할 정의선 부회장의 몫이자 과제이다. <2면에 계속>

전도연 올해 개봉작만 3편 '독보적 존재감' p/16

세월호 배보상특별법 참사 271일만에 본회의 통과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스마트카에 올인…갈 길은 아득

현대차 프리미엄 전략 주도…디자인은 성공적

<1면에서 계속>

정 부회장은 앞서 디자인경영을 이끌며 그동안 기아차 성공의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했다. 당시 영입한 피터 슈라이어 현대기아차 디자인 총괄 사장은 제2의 도약을 위한 성공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고성능 프리미엄차와 스마트카 부분에서 갈 길은 멀다. 독일 업체들이 선도하고 있는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연구개발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정 부회장은 현대차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프리미엄'이라는 고급화 전략을 앞장서 추진해 왔다.

그러나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현대차 점유율은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 부회장은 BMW그룹 고성능차 전용 브랜드 'M 시리즈'의 개발 총괄 책임자 알버트 비어만 부사장을 영입하는 카드를 꺼냈다. BMW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해 현대차그룹의 고성능차 개발을 추진하고 기존 제품의 주행 성능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고성능 차 개발은 정 부회장의 새롭게 던진 전략적 리더십을 평가 받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현대차는 이를 위해 4년간 81조원에 달하는 통큰 투자를 한다. 스마트자동차에도 2조원을 투자해 자율주행 및 차량IT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차량용 반도체 및 자율주행 핵심 부품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미래차 개발 요율성 제고를 위해 남양연구소 내 관련자 시험동 신축과 전자연구동 증축을 실시하고 부품 계열사 내에 디스플레이 공장 및 전자제어연구센터도 신축한다. 또 친환경 기술 및 스마트자동차 개발을 담당할 인력 3251명을 포함, 총 7345명의 연구개발(R&D) 인력도 채용할 예정이다.

정 부회장은 4년만에 디트로이트를 다시 찾아 스마트카 알리기에도 나섰다. 정 부회장이 연초부터 미국에 관심을 쏟는 것은 시장의 중요성 때문이다. 미국 자동차 시장은 지난해 1652만2000대가 판매돼 전년보다 5.5% 성장했다. 미국은 주요 선진 시장 중 유일하게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며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투자와 정 부회장의 미국시장 직접 챙기기 행보는 그룹 브랜드 강화와 친환경차, 고성능차 시장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김효준기자

정몽구·정의선 현대글로비스 지분 13% 매각추진

1조3800억원 확보해 현대모비스 주식 살 듯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과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이 보유 중인 현대글로비스 주식 13% 가량을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투자은행업계와 현대차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 회장 부자는 보유 중인 현대글로비스 주식 1627만1460주(43.39%) 중 502만2170주(13.39%)를 매각키로 하고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블록딜(시간외 대량 거래)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정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하거나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매각해 현대모비스 주식을 살 것으로 예상해 왔다.

이번 매각이 성사되면 정 회장 부자는 최대 1조3800억원 가량의 자금을 확보할 전망이다.

예상 매각가격은 12일 현대글로비스 종가(30만원)보다 7.5~12.0% 할인된 26만4000~27만7500원으로 전해졌다. 매각이 성사되면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은 29.99%로 낮아진다.

/김의태기자 [illegible]

파주 자유로 일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전제 조건은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북측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라는데…

기자 수첩
김형석 <경제부 기자>

자동차보험(이하 자보)의 손해율이 급상승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울상'이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1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8.3%로 전년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동부화재는 전년(88.7%)보다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99.9%를 기록했다. 현대해상(104%)과 LIG손보도 100%를 넘었다. 이 수치는 모두 적정 손해율인 77%보다 20%포인트 이상 높다.

자보로 인한 적자도 심각한 수준이다. 자보를 판매하는 18개 손보사의 지난해 적자액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2010년 1조5369억원 적자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업계에서는 자보비중을 줄이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온라인 자보 전업사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가 모회사인 현대해상에 흡수 결정이 나기도 했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자동차보험의 경영정상화'를 꼽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손보사 중 어느 한 업체도 자보 시장에서 철수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심지어 현재 농기계 보험만 판매 중인 NH농협손보도 적자를 감수하고 자보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지만 기존 업계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처럼 손보사들이 자보를 고수하는 이유는 이 상품이 다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미끼' 상품이기 때문이다.

한 손보업계 전속설계사는 "자보는 수수료도 낮지만 타 상품보다 판매가 쉽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보장성 상품이나 저축성 상품을 순차적 판매할 수 있다"며 "자보가 없다면 해당 보험사의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적 쇄신'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문건 유출 파동'과 관련해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제기한 '청와대 인적쇄신' 요구를 일축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집권 3년차 국정동력을 확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몰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지만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측근 비서관 3명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은 물론 언론 야당 이런 등에서 비리가 있는지 등을 오랜 기간 살살이 찾았지만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휘 통솔 책임론이 불거진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보기 드물게 사심이 없고 가정에 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 자리에 연연할 이유 없이 옆에서 도와줬다"며 변함없는 신임을 나타냈다. 다만 당면 현안 수습 이후 김 실장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송병형기자 [illegible]

공무원연금특위 첫 회의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선출하고 여야 간사에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국민모임 창당 작업 본격화…첫 토론회

시민사회와 학계 등 재야 진보인사로 구성된 '국민모임'이 12일 첫 대규모 회동을 하고 신당 창당에 시동을 걸었다.

국민모임은 이날 '새로운 정치세력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1차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신당의 필요성과 지향점을 소개했다.

또 정동영 전 의원의 합류 선언과 관련, 공식 논평을 내고 "정 전 의원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밑알이 돼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2명 사망

질소 누출로 질식사…4명 부상·1명 위독

12일 오후 12시50분께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이모(34)씨, 문모(33)씨 등 2명이 숨졌다.

또 오모(31)씨 등 4명이 부상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이들 가운데 오모씨는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장 9층에서 TM 설비를 점검하던 중 가스가 누출돼 이같은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LG디스플레이단지 내 자체 소방대가 방재 작업을 벌이고 부상자를 이송했다.

현장에는 소방당국이 장비 10대와 소방관 18명을 투입해 방재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경찰은 현장 감식에 나서 사고 원인과 질소 유출량 등을 확인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2일 오후 12시43분에 P8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8세대 라인 공정 장비의 정기유지보수 과정 중 질소가스로 인한 질식사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발생 즉시 소방서와 경찰서에 신고한 후 자체 안전관리팀을 소집해서 상황을 수습했으며 피해자들을 즉시 인접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LG디스플레이는 "사망한 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당한 임직원들의 빠른 회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사고 원인 파악에 대해서도 유관기관에 적극 협조해 원인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LG디스플레이는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사업장에서 불시 비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난해 100회 넘게 가스 누출 등의 시고에 대비해 비상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장혜진기자 hjjang0404@metroseoul.co.kr

가을학기제 도입 8~10조 추산

각급학교에서 9월에 첫 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에 필요한 비용이 8조~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9월 신학년제 실행 방안'은 '9월 신학년제'로 전환하는 모형 6가지를 제시하고 특정연도의 신입생 증가에 따른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에 들어갈 비용을 이같이 추산했다.

우선 초등학교의 2018학년도 3월 입학을 6개월 앞당기는 모형은 2017학년도에 신입생이 두 배로 늘면서 2028년까지 12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10조430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원 증원은 초등학교가 2017~2022학년에 매년 2만2712명(4980억원), 중학교가 2023~2025학년에 매년 2만6651명(5597억원), 고등학교가 2026~2028학년도에 매년 2만6499명(556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했다.

교원 증원의 인건비 합계는 6조3366억원(30만1722명)이다.

학급 증설은 2017학년도에 초등학교 1만5703개, 2023학년도에 중학교 1만3460개, 2026학년도에 고등학교 1만1777개로 모두 4조940억원(4만940학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7학년도 9월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은 47만1097명으로 계산됐다.

교원 증원 비용은 1명당 연봉액이 2100만원, 학급 증설 비용은 1개당 1억원으로 각각 설정됐다.

이 모형은 2017학년도부터 9월부터 6년간 초등학교 신입생의 입학기준일을 14개월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교원 증원에 6조2677억원, 학급 증설에 2조8380억원 등 모두 9조1057억원의 비용이 나온다.

초등학교 입학을 6개월 연기하는 방식도 비슷한 규모의 비용이 필요하다.

2018학년도 3월 입학을 일괄적으로 그해 9월로 변경하면 2029학년도까지 10조3214억원(교원 증원 6조2700억원, 학급 증설 4조514억원)이 산출됐다.

또 2018학년도 3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교육기간을 일괄적으로 6개월 연장하는 모형은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에 모두 10조3억원의 비용이 산출됐다.

보고서는 "교육기간 단축은 학교의 파행적 운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입학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정영일기자

의정부 아파트 화재 현장 합동 감식 12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열린 유관기관 합동 현장 감식에서 감식반이 첫 불이 난 곳으로 추정되는 주차장 구석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부 화재, 사상자 130명

사망 4명, 부상 126명으로 중상 많아 사상자 늘 수도

경기 의정부 아파트 화재의 사상자가 총 130명으로 늘어났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12일 오전 8시 현재 의정부동 대봉 그린아파트에서 발생한 불로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부상한 것으로 공식 집계했다.

이 중 사망자는 한경진(26·여), 윤효정(29·여)씨 등 4명이며, 중상자 11명과 경상자 70명 등 81명이 현재 10여 곳의 병원에 입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본부 측은 "중상자들이 많아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9시13분께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 주차장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 건물로 확산돼 10층과 15층짜리 건물까지 총 3개 동을 태웠다.

이번 화재사고와 관련해 지난 11일 오전 8시 현재 의정부시 화재피해종합비상대책본부에는 226명이 이재민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7가구 42명이 의정부시가 이재민을 위한 임시 거처로 마련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밤을 보냈다. 대책본부는 밤 사이 이재민들의 편의를 위해 스티로폼 180개와 구호물품 364세트, 모포 등 침구류 460개, 닌밤세트 70개 등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국민안전처는 경찰, 국과수 등 유관기관 합동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과 소방설비 작동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김성원기자 jurws@

'사무장에 명의 대여' 변호사들 벌금형

법조계에선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졌던 '변호사 명의 대여'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41)씨 등 변호사 7명에게 벌금 1500만~5000만원과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대부분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사무실을 낸 변호사들이다. 이들은 2007~2012년 자릿세 명목으로 매달 1인당 약 60만원, 명의 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8만~11만원을 받으면서 사무장 등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신 처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피고인들은 사건을 알선한 브로커에게 그 대가로 수임액의 20%가량을 지급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과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변호사들이 얼마 되지 않는 고정적 수입을 얻으려고 탈법을 마다 않은 점이 예전과 다른 분위기를 보여준다"며 "그만큼 법률시장이 어려워졌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장윤희기자

장기입원 환자 병실료 8월 올라

'본인부담 인상' 시행

장기입원 환자의 병실료가 오는 8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이 최근 8월 시행으로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입원료는 입원기간이 길수록 환자의 부담이 감소하는 체계다. 입원기간 16일 이상이면 90%, 31일 이상이면 85%로 입원료가 줄지만 본인부담률은 변동이 없다. 이에 입원료 구조가 장기입원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 20%인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16~30일 입원하면 30%, 31일 이상은 40%로 인상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만약 복지부의 방안이 적용되면 상급종합병원 6인실을 기준으로 환자가 1~15일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금은 1만60원, 16~30일은 1만3560원이다. 또 31일 이상 입원하면 1만71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황재용기자 hsoul38@

방통대, 1학기 시간제 등록생 모집

한국방송통신대는 12일부터 19일까지 2015학년도 1학기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한다.

시간제 등록제란 대학에 입학 등록을 하지 않아도 매 학기마다 모집을 통해 방송대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해 성적을 취득,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체 20개 학과에서 총 1만1000명 규모로 모집하는 이번 시간제 등록제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학기당 12학점 이내로 수강할 수 있으며 지원 학과의 교과목 1개를 포함, 최대 4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방송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모집 요강에 기재된 서류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현정기자

영세 중이라도 배고파 울면 젖 주라 프란치스코 교황이 11일(현지시간) 바티칸 시스틴 성당에서 영세의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식을 시작하더라도 아기들이 배가 고파 울면 주저하지 말고 젖을 주라"고 당부했다. /AP 연합뉴스

서방-이슬람 사이버전 벌이나

어나니머스, 지하디스트 사이트 해킹…IS도 반격 나설 듯

전 세계를 경악시킨 파리테러 사건이 서방과 이슬람간의 사이버 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12일 CNN 등에 따르면 국제 해커조직 어나니머스(Anonymous)는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 웹사이트에 대한 해킹 공격에 나섰다.

어나니머스의 해킹 공격을 받은 프랑스 지하디스트 웹사이트 '안사르 알하크'(ansar-alhaqq.net)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검색엔진 '덕덕고(Duck Duck Go)'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샤를리 에브도 작전(OpCharlieHebdo)'이라는 트위터 계정을 쓰는 한 해커는 자신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어나니머스는 지난 9일 트위터에 알카에다와 이슬람국가(IS)에 보내는 동영상을 게재하고 테러리스트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당시 어나니머스는 단체의 상징인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인물 그림과 '#OpCharlieHebdo'라는 해시태그(주제어 분류)를 함께 게재했다.

상당한 사이버전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알카에다와 IS도 반격에 나설 것으로 우려된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지도자들이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테러규탄 집회에 참가, 선두에 서서 거리행진을 이끌고 있다. /AP 연합뉴스

IS는 이미 9일 프랑스 파리 인근 소도시들의 지자체 웹사이트를 공격해 완전 불통 상태에 빠뜨린 바 있다.

◆내달 18일 글로벌 정상회의

사이버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소속 11개국과 미국, 캐나다의 관계 장관은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내무장관의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지하디스트(성전주의자)의 테러를 막기 위해 인터넷 감시와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증오와 테러를 선동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면밀히 감시하고 필요하면 이를 삭제하는 데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백악관은 다음달 18일 극단주의자들의 급진화와 인력 모집 선동 행위 사이버테러 등을 막기 위한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을 위한 정상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국명기자 kales@metroseoul.co.kr

헌혈로 에이즈에 감염된 다섯살 소녀

metro HongKong

女童輸血感染愛滋 另有患者下落不明

나이살 여자 어린이가 헌혈로 에이즈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했다.

10일(현지시간) 푸젠성 보건가족계획위원회는 마오마오(5) 양에게 헌혈을 한 헌혈자 가운데 한 명이 HIV항체검사에서 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헌혈자에게 수혈을 받은 환자는 마오마오 외에 두 명이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오마오 양은 생후 8개월이던 지난 2010년 5월 4일 푸젠성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셰허의원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았다. 수술 과정에서 8명의 헌혈자 혈액을 통해 혈소판 적혈구 혈장을 공급받았다.

푸젠성 질병예방통제센터는 8명의 헌혈자를 일일이 조사한 결과 HIV항체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났던 헌혈자 천모씨가 이번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천모씨는 2010년 3월 31일 헌혈에 참여할 당시 혈액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천씨는 자신이 HIV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냈다.

마오마오 측 변호사 우수핑은 "의료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채혈부터 헌혈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 당시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리=정윤희기자

크로아티아 첫 여성 대통령 탄생

크로아티아에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11일(현지시간) 열린 크로아티아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야권 단일 후보인 콜린다 그라바르-키타로비치(46·사진)가 승리해 첫 여성 대통령 기록을 세웠다. 그라바르-키타로비치는 크로아티아가 1991년 유고연방에서 분리독립한 이후 배출된 첫 여성 대통령이다.

크로아티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도우파 야당 크로아티아민주동맹(HDZ)의 그라바르-키타로비치 후보가 50.54%를 득표해 49.46%를 얻은 이보 요시포비치 현직 대통령에게 승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 양 후보는 경제 회복을 최대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현직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면서 그라바르-키타로비치 후보가 상승세를 탔다.

/정윤희기자 unique@

바지 벗고 지하철 타세요 11일(현지시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지하철에서 '바지 벗고 지하철 타는 날' 행사 참가자들이 최의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전 세계 60여개 도시에서 수천명이 참가해 색다른 지하철 문화를 즐겼다. /AP 연합뉴스

에어아시아기 블랙박스 발견

에어아시아기 사고 원인 규명이 빨라질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수색 당국은 지난해 12월 28일 자바해에 추락한 에어아시아 여객기의 블랙박스 2개를 모두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항공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누르카효 우토모 조사관은 "비행기록장치(FDR)을 수도 자카르타로 가져가 분석할 것"이라며 "기록 자료를 내려받아 분석하는 데 2주일가량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美 디즈니 게 섰거라~"

中 최대 부동산회사 완다그룹 엔터 기업 변신

중국 최대 부동산 회사인 다롄완다그룹이 미국 디즈니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9개 쇼핑지구와 71개의 고급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완다그룹이 빠르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완다그룹은 2000억 위안(약 35조원)을 투자해 중국 주요 도시에 12개의 테마파크를 세울 계획이다. 특히 광저우와 우시에 건립할 예정인 테마파크는 인근 홍콩과 상하이에 있는 디즈니랜드 고객을 흡수할 목적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70억 위안(약 1조2000억원)을 들여 쿠베이성 우한에 문을 연 쇼와 영화 테마파크 겸 중국식 서커스 극장을 인수했다. 지난해에는 중국 내에서 새로운 영화제작 스튜디오인 '오리엔탈 무비 메트로폴리스'를 착공했다.

중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놓고 디즈니와의 진검승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왕젠린 완다그룹 회장은 "지난 200년 동안 많은 사람이 서양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만 우리가 계획 중인 테마파크의 건설을 끝낸 시점에는 모든 사람이 주목할 만한 지표를 갖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국명기자

증권계좌도 피싱보험 보장받는다

금융가 사람들

■ NH투자증권 이원경 차장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금융권은 홍역을 앓았다. 피싱, 스미싱과 같은 신종 전자금융사기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금융소비자의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고객들의 금융사기에 대비해 일정액을 보장해주는 서비스 도입에 공을 들여왔다.

NH투자증권이 올해 통합증권사 출범과 함께 선보이는 '증권계좌 안심보장 서비스'는 증권업계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보장서비스다.

이원경 NH투자증권 스마트금융본부 차장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객 보호를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 차장은 "개인 본인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기를 당한 경우 보장받을 길이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 형태로 적용했다"며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가입된 모든 계좌가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의 통합에 발맞춰 지난 2일 출범한 이번 서비스는 지난 6일까지 2000명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서비스는 피싱·해킹 금융사기로 인해 NH투자증권 계좌에서 자금이 부당 송금 또는 인출되거나, 증권카드가 부당 사용돼 고객이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 300만원 한도로 피해를 보상해준다.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1년간 보장되며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NH손해보험에 제출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보험회사에 내는 자기부담금 10만원는 고객이 납입해야 한다.

쉽게 말해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고객이 피보험자로서 보호를 받는 방식이다.

기존 은행이나 카드와 같은 금융업권에서는 비슷하게 고객 보호기능을 적용한 서비스가 이미 시행 중이다.

현대카드가 '전자금융사기 보장보험'을 지난 2012년 4월에 카드론 가입고객을 상대로 판매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해 5월에는 KB국민은행이 '마음 편한 통장'을 통장 가입고객에게 선보였다.

이 차장은 "NH투자증권의 증권계좌 안심보장 서비스는 통합 출범에 따른 시은의 의미를 담아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투자증권 지점 영업을 거쳐 스마트금융본부에서 각종 투자컨설팅과 자산관리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며 잔뼈가 굵은 16년차 베테랑이다.

그가 기획했거나 참여한 대표 서비스로는 지난 1998년에 출시돼 현재 3만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온라인 주식투자 상담서비스 '머그컵'과 고령층 고객이 모바일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을 손쉽게 해결하고자 도입한 '모바일 헬프데스크' 등이 있다.

이 차장은 "증권업 역시 온라인 채널로 시장 이하내용는 환경에 놓였다"며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고객 영향으로 자산관리와 투자컨설팅을 했던 경험을 살려 온라인 시장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문희기자 kjkim@metroseoul.co.kr

지난해 11월 건설공사 수주 7조3466억

전년비 12% 감소

지난해 11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7조346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0%(8조3469억원), 전월대비로는 17.6%(8조9165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건설협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내건설 수주 동향을 조사해 발표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내건설수주액 중 공공부문 수주액은 2조4881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2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노반공사(산성터널3공구 공사, 덕적도~소야도간 연도교건설공사)과 발전송전배전(군포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에서의 호조를 제외하고는 SOC를 비롯한 여타 공종들의 전반적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29.9% 감소했다. 공공건축은 사무용, 공업용과 주거용 등 모든 공종에서 감소해 전년동월대비 19.7% 감소했다. 또 민간부문 수주액은 4조858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2% 감소됐다.

/김두탁기자 kimdt@

태백산의 눈꽃 휴일인 지난 11일 등산객들이 눈꽃이 활짝 핀 태백산 정상 장군봉에서 천제단 사이 백두대간 능선을 걸어가고 있다. 이날 태백산 입장객은 올겨울 들어 가장 많은 1만 4200여 명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朴 대통령 "금리 인하 적기 대응"에 금융권 촉각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해 금융시장에 미묘한 파동이 일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협의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시장 시장은 박 대통령 발언에 즉각 반응했다.

국채 선물 시장에서는 3년 국채선물(KTB)이 박 대통령의 발언직후 19틱 급등, 108.60에 거래됐다.

이날 오전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지표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26%포인트 내린 2.030%, 10년물 지표금리는 0.076%포인트 하락한 2.460%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층 강해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정부 의지가 실린 것이라면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될 것으로 본다"면서 "아무리 한은이 독립성을 강조해도 통수권자의 국정 운영 큰 그림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윤여삼 KDB대우증권 연구원도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을 충분히 유지시킬 수 있을 정도의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원론적인 얘기라고 할 수도 있다"면서 "구조개혁, 통화정책 등 모든 카드를 다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 측은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원론적인 내용의 답변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 정책을 적기에 잘 운용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 원론적 말씀으로 이해된다"며 "금리 정책은 금통위가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잘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문희기자 km@

market index <12일>

코스피	코스닥
1920.95 (-3.76)	574.76 (+1.77)

금리	환율
2.02 (-0.04)	1084.80 (-6.60)

금융위, 하나·외환銀 통합 사실상 승인

노사합의 안돼도 처리 가능성 시사

금융당국이 하나·외환은행 통합을 사실상 승인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간 충분한 노사 협의기간을 줬다"며 "보다 엄격한 법과 원칙에 따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의 통합을 진행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통합 승인 의결 권한을 지닌 금융위가 양 은행에 최후 통첩을 날린 것이다.

신 위원장은 또 "지난해 7월 이후 지금까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의 협상을 지켜봤으나 진전이 없었다"며 "노사합의 없는 통합신청 처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양측이 회사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외환은행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없어도 통합승인신청서를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하나·외환은행 통합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나금융이 늦어도 이달 중으로 통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혀온 만큼 이르면 이달 내에 조기통합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재 하나금융과 외환 노조 모두 "성실히 대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조기통합과 2·17합의서(외환은행 5년 독립경영 보장 내용) 이행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양측 노사는 최근 비정규직 전환 문제로도 입장차를 보인 바 있다.

아울러 협상의 진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화기구 발족 합의문'을 추진해왔으나 통합절차 잠정중단 여부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실상 대화를 중단했었다.

한편 외환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 노조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금융 지주 측에 대화 기구 발족 없이 통합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김근용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신 위원장 발언은) 노사가 좀더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대화 진전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하나금융 대리인인 외환은행장에게 서신을 보내 향후 60일 이후인 3월 13일까지 통합이부, 통합원칙, 인사원칙 등에 관한 실질적 협상을 통해 새로운 합의서를 체결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했다"며 "지주도 협상에 진정성 있게 나서고 금융위도 양측 대화가 원만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측은 "금융위 입장은 당장 통합을 승인하겠다는 것보다 기존의 기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합병과 관련된 일정 등은 아직 정확히 확정된 것이 없고 외환 노조와의 대화는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미란기자 sy1253@metroseoul.co.kr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12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 노조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금융 지주 측에 대화 기구 발족 없이 통합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 제공

1월 금리 동결 전망

오는 15일 개최되는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두 차례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데다 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한은이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현재와 경기상황이 개선되거나 악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동결 배경으로 꼽힌다.

더욱이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을 보면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낮은 물가상승률이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하락 등 공급 요인에 기인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물가목표 달성만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올해 1분기 내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윤여삼 대우증권 채권팀장은 "이달 금통위를 앞두고 최근 확산된 정책 경계심리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주 시장은 정책 경계심보다 경기 의구심을 앞세우며 금리 수준을 낮췄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은 금통위가 올해 1분기말에서 2분기 초 정도에 금리를 1.75%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기준금리 추가인하의 조건으로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7% 이하로 하향 조정 ▲물가 전망도 1% 중후반 수준으로 조정 ▲1월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 개진 등을 꼽았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이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문기기자 min28@

하나銀, 고객 감사 이벤트

● 하나은행은 12일 금융감독원 주관 우수 금융신상품 선정을 기념해 '아낌e-보금자리론 고객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낌e-보금자리론' 상품이 2014 우수 금융신상품에서 우수상을 받은 기념으로 마련됐다.

금감원은 매년 연말 그해 출시된 금융상품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우수상품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개발한 독창성과 저금리 제공이라는 공익성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라고 하나은행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 27일까지 하나은행의 '아낌e-보금자리론'을 신청해 대출 승인이 완료된 고객 200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모바일 기프티콘 5000원권이 증정된다.

KB주주 사외이사 제안권

● 앞으로 KB금융 주주는 사외이사 예비후보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12일 KB금융그룹은 지난 9일 이사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배구조 개선의 하나로 이에 따라 KB금융의 모든 주주들에게 사외이사 예비후보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KB금융 관계자는 "모든 주주가 사외이사 예비후보 POOL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국내 금융권에서 처음있는 일"이라며 "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를 주주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 선임될 예비후보 POOL 구성에 참여할 주주는 23일까지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 KB금융지주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업계, 中·베트남시장 '주목'

중국 손보시장 규모 136조 급성장 중

최근 저금리 지속에 따른 역마진 우려와 국내 보험시장의 경쟁 과열로 보험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중국의 손해보험시장의 보험료 기준 규모는 1258억 달러(136조5433억2000만원)로 전년 대비 20.7% 성장했다. 이 기간 생명보험시장도 7.8% 포인트 성장한 1521억 달러(한화 165조8?3억4000만원)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최근 빠른 경제성장으로 자동차보험(이하 자보)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자보 원수보험료 규모는 6조8500억 동(한화 3472억9500만원)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베트남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연평균 12.1% 성장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당국의 비보험 차량 단속에 따른 자동차보험 가입 증가와 제3자 의무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도 시장 성장요인으로 꼽힌다.

베트남 정부는 대인보상한도를 2008년 약 2357 달러에서 2012년 3300 달러로 상향조정했지만 증가율이 40%에 그쳐 2008~2012년 누적 물가상승률 50.9% 보다 낮다. 또한 대인보상한도 7000만 동은 베트남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배 이하 수준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의 소득을 보상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업체가 중국과 베트남에서의 실적은 미미하다.

최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중국에 진출한 업체는 삼성·한화생명 등 뿐이다. 이들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0.03%, 0.006%로 28개 외자사 중 15위와 18위에 불과하고 지난 2013년 순적자(법인세 차감전)도 119억원, 99억원에 달했다.

베트남에는 한화생명이 유일하게 진출해 시장 점유율 2.00%를 기록하고 있다.

/김형석기자 khs84@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이산 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8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김세준
광고문의 (02)721-9854·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다06346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공시 소폭 감소

시설투자, 담보·채무보증 관련은 큰폭으로 줄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공시 건수가 1년 전보다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상장사의 공시 건수는 5% 가까이 줄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전체 공시건수는 1만4473건으로 전년보다 1.9% 감소했다.

시설투자, 담보·채무보증, 종속회사 관련 공시가 크게 감소한 반면에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 새도우보팅제 폐지 관련 조기 감사 변경, 소송 관련 공시가 증가하면서 전체 수시공시는 225건 줄었다.

자율공시는 단일판매·공급계약, 특허 등 영업 및 투자활동 관련 공시가 줄면서 전년보다 90건 감소한 1331건으로 집계됐다.

공정공시는 영업잠정실적 공시와 배당계획 등 수시공시 의무관련 사항 공시가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26건 증가했다.

조회공시는 풍문·보도와 관련해서는 감소했지만 시황급변은 크게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4건 증가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전체 공시건수는 1만5031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4.7% 감소했다.

지난해 1사당 평균 공시건수도 14.2건으로 1년 전보다 1.4건 줄었다.

공시 유형별로 살펴볼 때 수시공시 건이 가장 많이 줄었다.

수시공시는 지난 2013년 1만1620건에서 지난해 1만920건으로 700건 감소됐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금지되면서 BW 발행이 급감해 주식 관련 사채 발행 공시가 줄었다. 종속회사 관련 공시 건수도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코스닥시장이 안정화되면서 풍문·보도 조회공시 등 조회공시 건수도 이 기간에 242건에서 180건으로 줄었다.

자율공시도 재작년 3038건에서 지난해 2965건으로 2.4% 감소했다.

반면 공정공시는 잠정 영업실적과 배당 관련 수시공시 등이 늘어나 재작년 874건에서 지난해 966건으로 92건 늘어났다.

한편 불성실공시의 경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시교육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부실기업을 증시에서 지속적으로 퇴출한 덕분에 2011년 이후 줄곧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1년 110건이었던 불성실공시는 2012년 77건, 2013년 53건, 2014년 48건으로 줄었다.

/이현정기자 hkkim@metroseoul.co.kr

뉴스&뉴스

'KDB대우 원유 [illegible]' 출시

● KDB대우증권은 12일 원유에 분할투자하는 'KDB대우 원유분할매수 랩(Wrap)'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WTI원유선물의 가격수준에 따라 원유선물 ETF를 분할매수하는 전략으로 운용된다.

WTI원유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50달러 이상인 경우 전체자산의 50%를 원유선물 ETF에 투자하고 50달러를 밑돌면 가격수준에 따라 추가로 원유선물 ETF를 편입한다.

국내에 상장된 원유선물 ETF에 투자하므로 중도해지수수료가 없다.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

NH투자 KStar 이벤트

● NH투자증권은 지난 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케이스타(KStar) ETF 거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일 KStar200을 2만주 거래하거나 KStar일본레버리지(H)를 3만주 이상 거래한 고객 선착순 10명에게 백화점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또 이 기간에 대상종목 합산 누적 거래대금 구간별로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NH투자증권을 거래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별도 이벤트 신청 없이 해당 종목 거래 시 자동으로 응모된다.

미래에셋증권, ELS 판매

● 미래에셋증권은 연 8.8% 스텝다운 ELS 상품을 포함한 파생결합증권 등 12종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 총 2000억원 규모로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에서 '미래에셋 제7074회 스텝다운 ELS'는 KOSPI200지수, HSCEI지수, 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조기상환형 스텝다운상품이다. 6개월 주기의 조기상환평가일과 만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18개월), 85%(24개월, 30개월, 36개월) 이상이면 연 8.8%의 수익을 지급한다.

동부증권, 특판RP 예약

● 동부증권은 12일부터 연 4.0% 금리를 제공하는 6개월 만기 특판RP 상품을 예약 판매한다고 밝혔다.

신규(유동)고객이라면 누구나 다음달 말까지 이번 특판RP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상품 가입과 같은 조건이 없으며 가입금액은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다.

이번 특판RP는 매주 30억원 한도로 월요일 오전부터 선착순으로 예약을 접수받아 수요일부터 예약 고객에게 판매된다. 계좌 개설 고객에 한해 예약할 수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사흘 연속 하락한 1081.40원에 거래를 마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원·달러 환율 1080원대로 하락

박근혜 대통령의 기준금리 인하 발언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강세가 주춤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080원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8.6원 내린 달러당 1081.4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오전 장중 달러당 1080.5원까지 하락했으나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 경계감에 1080원선을 지켰다.

미국의 임금인상률이 기대치를 밑돌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9일 발표된 미국의 12월 고용지표는 예상을 웃도는 양호한 수준을 보였지만 시간당 임금인상률은 전월 대비 0.2% 감소해 지난 2012년 10월 이후 첫 감소를 기록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시기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087.4원까지 반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론적인 차원의 발언이라는 해명이 나오면서 다시 레벨을 낮췄다.

한편 오후 3시38분 현재 원·엔 재정환율은 전장 뉴욕시장 대비 5.25원 하락한 100엔당 914.14원이다.

/김형석기자 khs84041@

50대 이상 투자자들 증권 분쟁조정 급증

지난해 50대 이상 투자자의 증권 분쟁조정 신청이 6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퇴직과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고령투자자들의 투자가 증가했고, 투자지식 부족으로 고령투자자들이 영업점 직원들의 투자권유와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불완전판매행위 관련 분쟁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처리한 증권·선물 분쟁조정 사건 가운데 67%는 50대 이상의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1년(33%)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고령투자자들의 피해가 크게 증가한 데에는 고령투자자들의 투자수요가 증가한 반면 투자지식은 부족해 영업점 직원들의 투자권유와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거래소가 처리한 증권·선물 분쟁조정 사건은 99건으로 집계됐다.

사건 유형별로는 부당권유가 44%로 가장 많았고 임의매매(13%), 일임매매(11%), 전산장애(9%), 주문집행(9%) 등이 뒤를 이었다.

부당권유와 관련된 분쟁은 2010년 16%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분쟁조정 정도는 개선됐다.

분쟁조정 사건 처리의 평균 기간은 26.5일로 전년의 32.1일보다 단축됐고, 조정합의율은 전년 52.9%에서 55.7%로 상승했다.

조정 결과 개인투자자 33명에게 손해배상금이 평균 900만원씩 지급됐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문인력 보강 등 투자자 보호 전담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시장 및 배출권시장 등 신시장에 대한 분쟁조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태규기자 [illegible]

금감원, 검사업무담당 종합연수

금융감독원은 12일 검사업무담당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검사역 종합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연수는 향후 예상되는 금융환경 변화를 분석한 후에 감독·검사업무 추진방향을 검사 담당자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람직한 검사업무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검사역이 지켜야 할 검사예절, 윤리의식과 검사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도 진행됐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연수에서 금융사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독·검사방식 혁신방향에 대해 검사역들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지적 위주의 검사관행을 지양하고 위험 취약부문 위주의 검사와 직원 제재의 금융사 위임을 확대할 것"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월 중 각 금융권역별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형석기자

북미국제오토쇼 '고성능 차' 부활 이끈다

캐딜락 CTS-V·어큐라 NSX 등 스포츠카 '봇물'

새해 모터쇼의 포문을 여는 북미국제오토쇼가 12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홀에서 열린다. 이번 모터쇼는 지난 수년간 대세를 이룬 친환경차와 함께 고성능차가 나수 출품되는 게 특징이다.

신형 쉐보레 볼트는 이번 모터쇼에서 주목받는 차 중 하나다. 전기모터와 조합되는 구형의 1.4ℓ 가솔린 엔진 배기량을 1.5ℓ로 키워 동력성능과 주행거리를 향상시킨 게 특장이다.

혼다는 연료전지차 'FCV 콘셉트'를 공개한다. 이 차는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 뒷바퀴를 일부 가렸으며, 도어 핸들도 노출시키지 않았다. 연료효율은 혼다가 과거 선보였던 모델보다 60% 높아졌으며, 완전 충전 때 주행가능거리는 300마일(약 480km)이다.

캐딜락은 최고출력 640마력의 CTS-V(사진)를 내놓는다. 새 엔진은 7세대 콜벳 Z06에서 가져온 LT4 엔진을 얹었으며, 0→시속 100km 가속시간은 3.7초에 불과하다. 556마력 엔진을 얹은 2세대 CTS-V보다 한층 강화된 성능이어서 스포츠 세단 마니아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혼다의 고성능차인 신형 어큐라 NSX도 등장한다. NSX는 90년대 혼다 기술력의 상징을 나타내던 미드십 스포츠카로, 한동안 단종된 후 수년간 신차 개발 소문이 돌았다. 신형 NSX는 가솔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용해 BMW i8과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

인피니티는 Q7 후속모델 성격의 Q60 콘셉트를 공개한다. 이 차는 '와이드 앤 로우(Wide & Low)' 스나일을 강조했다. 정교한 디자인과 낮은 루프라인, 퀼티드 타입 가죽 시트는 Q80 인스피레이션을 연상시키며, 전면 휠 아치 뒤에 위치한 공기역학적 설계의 에어덕트는 고성능 스포츠 세단 Q50오 루즈 콘셉트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다. Q60 콘셉트는 높은 완성도를 바탕으로 곧 양산 모델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BMW는 6시리즈의 마이너 체인지 모델을 소개한다. 쿠페와 컨버터블, 그란쿠페가 차례로 등장하며, 이들의 고성능 차종인 M6 시리즈도 나온다. 스타일은 새로 디자인한 앞뒤 범퍼와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로 단장했다. 엔진은 450마력 8기통 가솔린, 320마력 6기통 가솔린 엔진, 313마력 6기통 디젤 등 3종류가 마련된다.

미니의 고성능 버전인 JCW도 나온다. 231마력의 4기통 엔진을 얹은 신형 JCW는 0→시속 100km 가속시간 6.1초, 최고시속 246km의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이탈리아의 디자인·보니 제조업체 투어링 수퍼레제라 와 미니의 협력으로 탄생한 '미니 슈퍼 레제라 비전'도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렉서스는 중대형 세단 GS의 고성능 버전인 GS F를 처음 소개한다. V8 5.0ℓ 473마력 엔진을 얹었고 8단 스포츠 다이렉트 시프트(SPDS)를 적용해 0.1초 만에 변속이 가능하다. 최대토크는 53.7kg·m에 이른다.

폭스바겐은 고성능 크로스오버카인 '크로스쿠페 GTE'를 내놓는다. 5인승의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콘셉트로 개발된 이 차는 포르쉐 마칸, 아우디 Q5와 비슷한 크기의 중형 SUV다. V6 3.6ℓ 276마력 가솔린 엔진과 2개의 전기모터(54마력, 114마력)를 조합해 총 345마력의 출력을 낸다. 2013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나온 '크로스블루' 콘셉트카를 발전시킨 이 차는 2016년 양산될 예정이다.

/ferrari5@metroseoul.co.kr

경제계 朴 대통령 신년사 "환영"

구조개혁·경제활성화 지속 추진

경제계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적절한 방향"이라고 화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2일 논평에서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창조경제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의 지속 추진을 통한 내수활성화 의지를 밝힌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올해는 어려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시기다. 경제계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구조 개혁, 창조경제, 규제개혁 등 핵심 경제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을 이뤄 경제활력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력결집을 호소한 것으로서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업계의 입장' 논평을 내고 "경기회복의 온기가 실생활에 미치지 못한 것은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 때문으로 인식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국가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신년회견에 대해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확연해진 상황에서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노동시장 법제도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충분한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대통령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 의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전했다.

기아자동차와 함께하는 설 귀향
5박 6일 시승 이벤트

기아차 "설 귀향차 지원해드립니다"

기아자동차가 설 연휴를 맞아 총 54대의 귀향 차량을 무상 대여해주는 5박6일 시승 이벤트를 실시한다.

기아차는 전국 18개 드라이빙센터에 있는 K7 2015와 더 뉴 K9, 올 뉴 쏘렌토, 올 뉴 카니발을 설 귀향 차량으로 지원하며 만 21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12일부터 2월 8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http://www.kia.com)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아차는 신청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54명을 선정해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간 귀향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급 전달 때 5만원 상당의 주유 혜택을 제공한다.

기아차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기아차를 사랑하는 고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귀향 차량 지원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고객들이 즐거운 귀향길에 기아차와 동행하며 성능을 직접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는 새해를 맞아 1월 개인 출고고객 중 추첨을 통해 2015명을 선정, 이들에게 '주차 알림 번호 지킴이' 서비스를 2년 동안 제공한다.

주차 알림 번호 지킴이는 특수 단말기에 차량 고객의 핸드폰번호 대신에 한 시간마다 변하는 임의번호를 표시해 차량 고객과 전화연결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운전자의 연락처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게 된다.

GM, 신형 '볼트' 베일 벗었다

쉐보레(Chevrolet)가 12일(미국시간) 프레스 데이(Press Day)를 시작으로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 센터(Cobo Center)에서 개막하는 2015 북미국제오토쇼(North America International Auto Show)에서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 볼트의 차세대 모델을 공개했다.

차세대 볼트는 전용 리튬 이온 배터리와 드라이브 유닛, 주행거리 연장 시스템(Ranger Extender)으로 이뤄진 볼텍(Voltec) 시스템을 통해 순수 전기모드로 80km, 1회 충전으로 64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했다.

차세대 볼트는 순수 전기모드와 일반주행 상황에서 모두 작동하는 두 개의 전기모터를 통해 2.6초 만에 시속 49km에 도달한다. 시속 97km/h를 8.4초에 주파해 1세대 모델보다 19% 포인트 향상된 가속 성능을 제공한다.

삼성·LG전자 이번엔 무선청소기 전쟁

LG "업계 최초 전 라인업 완성" 강조
삼성 "LG가 말한 최초는 자사 기준"

전자 라이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번에는 무선 진공청소기를 놓고 자존심 대결을 한다.

디지털TV, 냉장고, 에어컨은 물론 최근 세탁기까지 다수의 제품군에서 신경전을 벌였던 양사가 무선 진공청소기 시장을 놓고 또 한번 각축을 벌인다.

신경전이 치열했던 세탁기를 놓고 양사는 법정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12일 LG전자는 업계 최초로 '코드제로(CordZero)' 무선 청소기 풀 라인업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즉 로봇청소기(2003년), 무선 핸디형 청소기(2013년), 무선 핸디스틱 청소기(2014년)에 이어 이달 프리미엄 무선 진공청소기까지 모두 출시해 삼성전자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고 강조한 것이다.

LG전자 무선 진공청소기 라인업을 완성한 제품은 '무선싸이킹'이다. 스마트 인버터 모터,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을 모두 결합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4시간 충전으로 일반모드 기준 최대 40분, 강 모드에서도 17분 동안 청소가 가능하다. 흡입력은 동종 업계 최대인 200W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바로 충전시간과 이용시간, 흡입력이다. 이날 LG전자가 강조한 이 분야의 수치는 그간 삼성전자의 경쟁 제품 스펙과 거의 같다.

즉 LG전자는 그동안 충전·이용시간, 흡입력에서 삼성제품에 밀렸지만 이번에 내놓는 무선싸이킹으로 열세였던 스펙을 같은 수준으로 맞추고 "업계 최초 라인업 완성"이라는 그럴듯한 타이틀까지 스스로 만들어 챙긴 셈이다.

LG전자 무선 진공청소기 '무선싸이킹' /LG전자 제공

삼성전자 진공청소기 'VC5000' /삼성전자 제공

지금까지 국내 무선 진공청소기 시장에서는 LG의 배터리 시간, 삼성의 흡입력이 키워드였다. 특히 LG전자는 계열사인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을 제품에 적용한 사실을 강조하며 "한번 충전으로 모레 청소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배터리 2개를 번갈아 쓸 경우 1시간10분 동안 청소기를 돌릴 수 있는 게 강점이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힘을 강조했다. 청소기 흡입 팬에 전투기 엔진과 거의 비슷한 구조임을 알리면서 옛 삼성항공 출신의 엔지니어가 팬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결국 삼성 청소기는 유선 제품과 유사한 200W의 출력을 갖춘 제품 생산에 성공했다.

더불어 일반 가정에서 실제 청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분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오래가는 LG 청소기를 우회적으로 깎아내렸다.

업계 최초라는 문구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은 이미 전 라인업을 양산했다. LG가 발표를 먼저하고 이제야 양산에 성공한 것과 차이가 있다"며 "업계 최초라기 보다는 자사 최초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날 LG전자의 발표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양사 제품의 장점과 스펙이 사실상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상향평준화가 된 만큼 또 한번 치열한 마케팅 전쟁이 예상된다.

/박상준기자 park@metroseoul.co.kr

삼성SDI 북미시장 진출

차 배터리 등 디트로이트 모터쇼 전시

삼성SDI가 북미 시장을 겨냥한 자동차용 배터리와 소재 제품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선보인다.

삼성SDI는 12일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Cobo)센터에서 열리는 '2015 북미 국제 오토쇼(NAIAS)'에 전기차용 배터리와 일반차량 내 외장재용 가능성 소재를 함께 전시한다고 밝혔다. 삼성SDI가 자동차용 배터리와 소재를 함께 전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SDI가 선보이는 전기차용 배터리는 크게 4가지 분야에 걸쳐 있다.

한 번 충전으로 300km 이상을 운행할 수 있는 120Ah 대용량 배터리 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와 전기자동차(EV) 상호 호환이 가능한 배터리 모듈, 기존 원형 2차전지 수준까지 높이를 줄인 콤팩트 디자인 셀, 자동차용 납축 배터리를 대체하거나 덧붙여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시스템인 LVS(Low Voltage Systems) 제품 등이다.

/한성눈기자 yaw@

호주산 체리 12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한·호주 FTA 체결로 무관세로 수입된 호주산 햇 체리를 소개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기존 수입 체리와 비교해 30% 저렴한 가격인 5900원에 250g 짜리 1팩을 판매한다. /뉴시스

삼성 SUHD TV 친환경 인증 획득

밝기 균일도·색 표현력 등 우수 평가

삼성전자의 'SUHD TV'가 화질과 친환경 기술력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SUHD TV가 세계적 인증기관인 미국 'UL'로부터 SUHD 화질 성능 검증과 친환경 제품 인증(SPC, Sustainable Product Certification)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UL은 지난 12월 삼성 SUHD TV의 ▲색 밝기 균일도 ▲기소 표현력 ▲색표현력 등 화질 요소를 평가했고 최종적으로 화질 성능 검증에 대한 인증서를 발행했다.

특히 삼성 SUHD TV는 디지털시네마(Digital Cinema Initiative) 색 표준인 DCI P3 기준으로 92% 이상의 풍부한 색표현력을 재현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SPC 인증도 획득했다. SPC 인증은 관련 관련 규격인 IEEE 1680 3에 따라 제품의 에너지 고효율성, 제품 수명 연장의 용이성, 친환경 포장재 사용, 기업의 친환경 노력성과 등을 평가한다.

유준영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상무는 "권위 있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색 재현력을 극대화한 SUHD TV의 화질과 친환경 기술력에 대해 최고의 제품임을 인정 받았다"며 "앞으로 업계 기준이 되는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시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인기자 N unc@

삼성전자 "3밴드 LTE-A 단말기는 체험용"

이동통신 3사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일부 이동사에 제공한 전용 단말기가 체험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9일 권오현 부회장 명의로 "고객 체험을 목적으로 갤럭시 노트4 S-LTE 단말기를 SK텔레콤과 KT에 제공했으며 고객 판매용은 추후 공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KT에 보냈다.

KT측은 "이 공문을 보더라도 지난해 12월 고객체험단에 유료 개통해준 단말이 체험용이 아니라 고객 판매용이라는 SK텔레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3밴드 LTE-A 서비스 상용화에 나섰다고 한다면 해당 단말이 시판용이어야 하는데 이번 공문은 SK텔레콤 측이 허위 사실을 발표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KT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의 방송 광고인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편에 대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LG유플러스 역시 "SK텔레콤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이미 시험 단말로 상용망 테스트를 완료한 지난해 6월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SK텔레콤 측은 경쟁사의 이 같은 주장에도 여전히 체험단에 제공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 S-LTE를 통해 3밴드 LTE-A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해당 단말기인 갤럭시 노트4 S-LTE가 체험용이 아닌 품질 검수가 완료됐고 돈을 받고 서비스하는상황"이라며 "여기에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세계통신장비사업자연합회(GSA)라는 공식 채널에서 SK텔레콤이 3밴드 LTE-A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인정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현재 갤럭시 노트4 S-LTE의 출고가가 99만9000원이며, 10만원대 요금제 기준 공시지원금을 10만원으로 책정, 89만900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재영기자

우리의 혁명은 숲에서 시작된다

DAS MUSICAL

ROBIN HOOD

로빈훗

2015. 1. 20. 2PM 2nd Ticket Open

2015.1.23 - 3.29 · 디큐브아트센터

유준상 서범주 이건명 홍경수 엄기준 조순창 박진우 박성환 규현 양요섭 서지영 김아선 김여진 다나 외

웨어러블기기 소셜커머스 뜬 이유

젊은층 위주 온라인 채널 인기 높아져
향후 온라인에서 가기 판매도 가능성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에서 잇따라 최신 웨어러블 기기를 선보이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1번가에서는 삼성전자·LG전자·소니·샤오미 등에서 출시한 최신 웨어러블 기기를 최대 23% 할인한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획전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에는 지난해 말 출시된 삼성전자의 '기어 S'와 LG전자의 'G 워치 R', 소니의 '스마트 워치3' 등 신제품들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신제품들이 벌써부터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는 것에 대해 인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재고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채널에서 오프라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거나 재고 상품들이 판매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11번가 관계자는 "재고 처리가 절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오히려 최근에는 웨어러블 기기의 인기가 크게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1번가에 따르면 지난 1~10일 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825% 상승했다. 스마트 워치는 611%, 스마트 밴드는 18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1번가 외에도 쿠팡·위메프·티몬 등 소셜커머스에서도 웨어러블 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업계에서는 온라인 채널이 IT 기기를 구입하는 중요한 마케팅 통로로 떠올랐다는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는 젊은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유통 채널"이라며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젊은 층들이 온라인을 통해 미리 제품 정보를 접하고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다"고 말했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웨어러블 기기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노트북, 카메라 등의 IT 기기들이 오픈마켓·소셜커머스에서 선출시 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추세로 미루어 향후에는 온라인 채널에서 먼저 판매되는 웨어러블 기기도 나올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혜인기자 hjung0404@metroseoul.co.kr

꼼꼼 IT 리뷰

■소니 액션캠 미니 AZ1

자신의 일상을 매순간 담으려는 셀피(Selfie)족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액션캠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의 증가로 업체 간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났다. 덕분에 합리적인 가격과 완성도 높은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액션캠은 말 그대로 스포츠 활동 중에 원하는 장면을 녹화할 수 있는 핸즈프리 캠코더다. 모터사이클, 산악자전거, 스키, 스노보드,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할 수 있는 제품이다. 특히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몸이나 장비에 부착해 원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니가 지난해 하반기 출시한 '액션캠 미니 AZ1'을 한 달 가량 사용해 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용자 활용도를 극대화한 제품이다.

소니 액션캠은 카메라와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밴드형식의 리모컨으로 구성됐다. 리모컨 없이 카메라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카메라는 손가락 두개 정도의 크기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사용방법도 간편하다.

여기서 와이파이를 이용해 리모컨과 카메라를 연동하면 활용 범위는 넓어진다. 리모컨 액정으로 촬영 화면을 모니터할 수 있고, 녹화 중이 아니더라도 카메라가 비추는 곳을 리모컨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특히 소니판의 강점인 방수·방진·방충 기능을 완벽하게 담았다. 이기에 방수 케이스가 별도로 있다. 덕분에 스키나 스노보드, 산악자전거 등 모든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데 문제가 없다. 방수 케이스 장착 시에도 내장 마이크로 녹음할 수 있다.

카메라를 끼울 수 있는 헬멧용과 헤어밴드, 자전거에 고정할 수 있는 어댑터같은 부가 구성품을 이용하면 여행이나 파티, 스포츠를 하면서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다. 170도 와이드 앵글 칼자이스 테사 렌즈를 탑재해 단체 사진 촬영이 용이하다.

스마트폰으로 촬영도 가능하다.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연동하면 촬영 영상과 사진을 스마트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헤어밴드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전거를 탈 때 스마트폰을 자전거 거치대에 설치하면 촬영중인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면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액션캠을 처음 사용할 경우 조금은 낯설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제품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성품을 별도로 구입해야한다는 비용 부담도 있다.

/정성훈기자 ysa@

1300원대 주유소 등장 1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개화동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차량이 주유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 주유소는 이날 휘발유값을 ℓ당 1399원으로 1원 내렸다. /연합뉴스

KT, 한국형 히든챔피언 발굴 나서

'K-Champ 벤처창업 공모전' 실시

KT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부흥을 이끌 미래 히든챔피언 발굴에 나선다.

KT는 ICT 기반의 한국형 히든챔피언 발굴을 위한 'K-Champ(케이-챔프) 벤처 창업 공모전'을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히든챔피언은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Hermann Simon)이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숨은 강소기업을 정의한 개념이다.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글로벌ICT 프리미어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 개념을 전입 보시켜 우리나라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강력한 ICT 기반에서 우리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가진 한국형 히든챔피언인 K-Champ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공모전은 설립 5년 미만 10인 이하 벤처기업(스타트업 포함)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이재영기자 ljy04@

효성그룹 "아낀 전기 되팔아요"

전력 수요자원거래 시장 진출

효성그룹이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참여한다.

전력 수요자원거래시장은 아낀 전력을 다시 파는 곳이다. 기업·공장 등이 기존 사용량보다 적게 전력을 쓰기로 수요관리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면 중개업체인 수요관리사업자가 아낀 전기를 모아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수익을 나눈다.

효성은 12일 에너지풀과 업무협약(BSA)을 맺었다고 밝혔다. 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전력거래소가 개설한 국내 수요자원거래시장에 수요관리사업자로 참여한다.

이 사업을 위해 유럽 최대 수요관리 전문기업인 프랑스의 에너지풀과 손잡았다.

효성 조현준 전략본부장(사장)은 "계열사인 효성ITX가 보유한 클라우드 플랫폼, 대용량 스토리지 분산처리 시스템 같은 사물인터넷(IoT) 핵심기술을 접목해 고객의 에너지 사용패턴을 분석하고 수요를 예측해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은 이번 신사업 진출로 전력피크저감, 신재생에너지 연계, 전력계통 주파수 조정 등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와 함께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박상훈기자 park@

미분양 아파트 부동산3법 통과로 '햇빛'

재건축·재개발 구역 인근 매수세 활발

지난 연말 통과한 부동산3법의 영향으로 재건축 재개발구역 인근 미분양 아파트가 빠른 속도로 팔려나가고 있다.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의 분양가를 올려 속도를 올릴 수 있게 된 덕분이다.

가격이 오르기 전 저렴한 미분양 아파트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샘플하우스를 오픈한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꿈의숲 SK뷰'는 그달 25일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 이틀 전인 23일 여야가 부동산3법 합의에 이르면서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200명이 넘는 수요자가 샘플하우스를 방문한 것.

이후에도 매일 200명 가까운 방문객이 몰리면서 '꿈의숲 SK뷰'는 약 2주 만에 34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부동산3법 합의 이전 일주일에 5~10건가량 판매되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소진 속도다.

특히 계약된 34건의 절반 이상이 이 아파트와 길 하나로 맞닿아 있는 장위뉴타운의 조합원으로 알려졌다.

계약자 정모씨(64·여)는 "분양가가 비싸다고 생각해 계약을 망설였는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장위뉴타운 아파트 가격은 더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여 매입했다"며 "나중에 이주하게 되면 들어와 살다 시세차익을 남긴 뒤 팔거나 임대로 돌릴 생각"이라고 전했다.

꿈의숲 SK뷰 샘플하우스를 찾은 수요자가 집안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분양 중인 '잠실 푸르지오 월드마크'에서는 지난달 24일 가계약만 해놓은 채 정계약을 미루던 계약자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분양 관계자는 "잠실 파크리오에 전세를 살던 세입자였는데 가계약 후 오랜 시간 고민만 하다 인근 가락시영과 잠실5단지 등의 재건축 단지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곧장 정계약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영등포 재개발의 포문을 연 '아크로타워 스퀘어'도 부동산3법 통과 이후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등포 일대는 물론, 목동에서까지 평소의 2배 이상 문의 전화가 오며 계약도 갑절 늘었다.

손병희 대림산업 분양소장은 "서울 4대문 안의 아파트는 희소성이 높은데다 수도권 수요자들은 정보에 민감한 편이라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계약이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올 상반기 미분양 소진에 박차를 가할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팀장은 "분양시장 호황과 맞물려 분양가 인상이 예상되는 지역 주변 미분양 물량까지 수혜를 입고 있다"며 "하지만 미분양 중에는 입지나 분양가 경쟁력이 뒤처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분위기에 휩쓸려 무턱대고 계약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email illegible]

아현 3구역 주민, 서부광역등기소 건립 반대 서울 마포구 서부광역등기소 신축 예정부지에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기소 건립반대 입주민 모임 관계자들이 서부광역등기소 현수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례신도시 상가 공급 봇물… 꼼꼼 체크법은

지난해 아파트 분양 돌풍을 일으켰던 위례신도시에서 올해는 상가 공급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수익형부동산 수요 증가와 함께 높은 인기가 예상되지만 공급 과잉도 우려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위례 우성트램타워'를 시작으로 '위례 우성에디피아', '위례 아이온스퀘어', '위례 중앙역 중앙타워', '위례 우남역 트램스퀘어', '위례 에어플타워' 등 연내 1000여 실의 점포가 공급된다.

위례신도시 상가의 경우 아파트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한판 웃돈에 웃돈까지 형성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 하지만 공급 물량이 늘면서 묻지마 계약이 아닌,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위례신도시 상가 홍보관은 지하철 복정역 인근에 몰려 있기 때문에 한번에 다양한 상품을 비교 분석해볼 수 있다"며 "홍보관 방문에 앞서 주요 체크사항을 적어가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주택형별 유닛이 설치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와는 달리, 상가 홍보관은 지역 내 위치와 공급물량을 파악할 수 있는 모형도가 배치된다. 모형도를 통해 접근성이 유효한 수요층의 분포 범위와 주변 상권과의 경쟁을 파악할 수 있다.

상가별 입지를 분석할 때는 대중교통의 연계성과 도보로 이용 가능한 배후수요 등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를 통해 유동인구, 고정인구를 동시에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를 갖고 오는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시설까지 따져보는 것도 좋다.

개발 호재와 교통여건 개선 등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게 도움이 된다. 특히 위례신도시의 경우 트램 주변으로 상가가 들어서고 있지만 트램의 정확한 완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홍보관 투어 이후에는 상권지도를 가지고 실제 물건지를 둘러보고 계약조건, 분양가, 납입조건, 예상 임대가, 시행사, 자금관리 업체 등도 추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최근 스트리트몰 형태의 상가가 유행하고 있지만 이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더 대표는 "저층의 스트리트몰은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한정되고 분양가도 비싼 편"이라며 "유행을 따르기보다 활용도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옥기자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 관심↑

전매 제한 없어 인기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방 민간택지는 수천가구에서 만가구이상 대단위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신도시와 같은 분양 효과를 누릴 수 있고 1년간 전매가 제한되는 공공택지와 달리 전매제한 기간이 없어 환금성이 높다.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2% 안팎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지방 부동산시장의 집값 고공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어 내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는 물론 여유자금 투자처를 찾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민간택지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매제한은 계약 직후부터 일정기간 동안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도록 한 조치다.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단기차익 실현이 어려웠다.

최근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 개발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1~2년씩 단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1~6년간의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된다. 수도권 민간택지는 6개월, 지방의 공공택지는 1년간 전매제한이 금지되지만 지방 민간택지지구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따로 없다.

또 내년부터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면 1순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전매제한이 지방 청약열풍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분양단지 중 1순위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는 모두 전매제한에서 자유로운 비공공택지 지역이었다. 창원 가음지구와 울산 강동산하지구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신도시급 민간택지 분양아파트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민간택지의 프리미엄 고공행진도 두드러져 지난 11월 청약접수를 실시한 대전 문지지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의 견본주택에는 일명 '떴다방'이 장사진을 이뤘다. 계약 직후 되팔려는 수요자들과 비용 부담이 들더라도 인기 주거지역에 안성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릴 것이란 예상 때문이었다.

지난 10월 청약접수를 실시한 울산 드림인시티 에일린의뜰 1차는 1순위 평균 4.32대1, 최고 10.17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계약 4일만에 완판돼 현재는 3000만원 가량 웃돈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감계지구에 위치한 H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창원 감계지구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는 택지로 앞서 공급된 힐스테이트 단지들에 1500만~2000만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근에 조성된 김해 율하지구 등에서 재미를 본 투자자들과 소문을 들은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고 실수요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김두탁기자 kim@

"스벅 아메리카노, 한국이 가장 비싸"

미국산 체리, 한미FTA 이후 가격 급등
수입 농산물·가공식품 국내 가격 높아

소비자단체에서 13개국 주요도시의 농산물과 식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국내 판매 가격이 해외에 비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탄산수나 유명 브랜드 커피 가격도 한국이 상위에 자리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세계 13개국 주요도시의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25개 품목 42개 제품의 국제물가조사를 실시했다.

12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조사한 42개 제품 중 35개 제품에서 비싼 순으로 상위 5위 안에 포함됐으며 특히 수입과일 9개 품목의 한국 판매 가격이 상당했다.

수입 포도 3종의 경우 660g 한송이가 레드글로브(7484원)와 크림슨 시들리스(8108원)은 13개국 중 두번 째로 비쌌고 탐슨 시들리스 청포도는 8860원으로 한국이 가장 비쌌다.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 인하로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됐던 미국산 체리 가격은 2012년 발효 당시 보다 지난해 6월 가격이 530원(42.4%) 올랐다. 반면 미국 현지 가격은 2012년 100g 당 1.15 달러에서 지난해 0.86 달러로 25 % 내려갔다.

한편 커피·치즈·생수 음료 등 가공식품도 국내 판매가가 비쌌다.

유명 커피브랜드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톨 사이즈 335㎖) 한국 가격(4100원)도 13개국 중 가장 비쌌다. 반면 미국 현지 가격(1806원)은 13개국 중 12위를 기록했다.

수입 생수 4개 제품 중 이탈리아산 아쿠아판나(3292원)와 프랑스산 볼빅(1175원)이 판매가 순위에서 각각 2위와 4위에 올랐다.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프랑스산 에비앙(1145원)은 한국 가격이 여섯 번째로 비쌌다.

이 외에 하이네켄 맥주(2위), 코카콜라(4위), 래핑카우(1위) 등도 국내 판매 가격이 높게 형성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시모 관계자는 "수입 과일을 포함한 농산물의 경우 복잡한 유통구조를 거치면서 유통 마진이 높아지고 이는 최종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국내 가격이 비싼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가격 인하 노력이 필요하고 수입·유통 구조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수정기자

유명인 없이도 '신선한 광고'

온라인몰, 재치있는 에피소드·콘셉트로 공감 이끌어

온라인 유통업계가 공개한 광고 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다. 유명 모델을 쓰지 않고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콘셉트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브랜드 콘셉트를 녹여내거나 집중하고 있는 서비스를 알리는 캠페인을 알리는 방법으로 광고 영상을 활용하고 있다.

인터파크투어는 '자리는 같아도 가격은 다르다'는 슬로건으로 항공기 안에서의 에피소드를 코믹하게 그린 신규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

인터파크투어에서 예약한 한 승객이 항공권 가격을 공개하자 기내 안은 승무원에게 항의하는 사람, 발을 구르며 우는 어른들의 모습이 슬로비디오로 흐르는 가운데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울게하소서'가 배경음악으로 삽입돼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엔딩 부분에는 장소가

호텔로 바뀌고 호텔 침대에 누워 있는 커플의 점원을 제는 "지쳐안습니다"라는 한 마디의 멘트가 새로운 상상을 불러일으키며 코믹한 여운을 남긴다. 재치 있는 에피소드와 카피 덕분에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240만 건을 돌파했다.

캐릭터를 모델로 내세워 비용을 아끼면서도 효과적으로 브랜드 콘셉트를 전달해 공감을 얻고 있는 업체도 있다. 옥션의 경우 지난해 5월 '쇼핑 왕국 이야'라는 콘셉트로 12종류의 동물 캐릭터로 제작한 광고를 시작했다. 간편결제 '스마일 페이'를 알리는 광고에 '불곰이 쥐 보기하 새' '귀찮기' '까먹었 닭' '편하게 시자' 등 캐릭터를 등장시켜 모바일 결제의 불편함을 꼬집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영상은 오픈한 지 5일 만에 조회 수가 5만 건을 육박하기도 했다.

이어 중고장터 모바일 앱 개편을 맞이 진행한 캠페인 광고에도 '믿고 판다' '편하게 사자' 등의 동물 캐릭터를 활용했다.

옥션 관계자는 "모델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이었고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이부터 주 고객층인 30~4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옥션은 올해도 캐릭터 광고를 방영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광고 콘셉트 등을 기획 중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추억의 군고구마 드세요" 12일 서울 홈플러스 금천점에서 도우미들이 추억의 군고구마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목동점, 잠실점, 금천점 등 전국 17개 주요 거점점포에서 오븐에 구운 즉석 군고구마를 판매한다. /홈플러스 제공

롯데리아 라면버거 3일만에 18만개 팔려

롯데리아가 지난 6일 출시한 라면 버거가 출시 3일만에 판매 18만개를 돌파했다.

특별한 할인 이벤트가 병행되지 않은 가운데에도 햄버거의 정형화된 틀을 깬 이색 제품 콘셉트로 주목 받고 있다는 것이 롯데리아측 설명이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햄버거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라면의 이색적인 아이템과 매운맛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제품 콘셉트가 적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새해맞이 따뜻한 세일 화끈한 이벤트

강강술래,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55% 파격할인
리솜스파캐슬 천천향, 삼원온수매트 증정이벤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새해를 맞아 고객들의 건강을 챙기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벌인다.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525-9292)을 통해선 이달 말까지 기력보충과 면역력 증진에 좋은 대용량(800㎖ 5봉, 15인분)과 소용량(350㎖ 5봉, 10인분) 곰탕으로 구성된 보양식 한우사골곰탕박스를 55% 할인된 3만8800원에 판매한다.

또 이달 15일까지 매장 인기메뉴로 구성된 '잘먹고잘사자세트'(한우불고기500g+술래양념520g+한돈양념500g+돼지양념500g)는 6만원(48%할인), 건강기원세트(강강양념520g+한우불고기400g)는 4만4000원(35%할인)에 구매 가능하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년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두 개의 가열통으로 난방속도가 더욱 빨라진 삼원온스파의 최고급 온수매트(판35만원 상당)과 온천 스파를 즐기며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리솜스파캐슬 천천향 이용권을 증정한다.

삼원온스파는 국내 최초 KC인증미 및 EMF전자기장환경인증 획득,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 기술혁신부분 수상 업체로 모터 없이 물을 데워 순환시키는 국내 유일의 저소음·절전형 전공 흡입방식을 보유한 곳이다.

서울에서 90분 거리의 천천향에서는 100% 천연 게르마늄 온천수(49도)가 매일 공급돼 건강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아토피 피부를 가진 아이들은 물론 신경통 관절염 성인병 등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서지원기자

유통업계, 발품 대신 '손품' 열풍

접근성 뛰어난 모바일 쇼핑시장 규모 확대
1대 1 고객 상담·큐레이션 서비스 등 인기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유통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모바일 쇼핑 시장은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2013년 대비 2014년의 모바일 쇼핑 시장 규모는 122.3% 증가한 13조1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는 22조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특히 20~30대 젊은층은 물론 40~50대까지 모바일 소비층이 확대되면서 유통업계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것이 모바일을 활용한 1대 1 실시간 고객상담, 모바일 큐레이션 서비스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고객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쇼핑의 편의를 제공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절감과 차별화된 고객관리가 가능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편의성과 접근성으로 무장한 모바일 쇼핑 시장의 큰손은 육아로 컴퓨터 앞에 앉을 시간조차 없는 엄마들이다. 이에 따라 제품 판매를 넘어 카카오톡을 활용한 1대 1 상담으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용품 브랜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드바는 카카오톡으로 1대 1 고객상담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상품, 프로모션 등 실시간 궁금증을 문의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담업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업계에서 차별화된 고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발간한 트렌드 코리아 2015 에서 정의한 2015년 트렌드 중 하나로 햄릿증후군이 선정됐다.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선택 장애 상황이 햄릿처럼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해 결정장애에 시달리는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제품을 추천하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활개를 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자사의 스마트폰용 모바일 앱을 통해 고객 맞춤형 DM(상품안내우편물)을 선보였다. 고객 개인의 구매 패턴, 라이프 스타일, 선호 제품군을 분석해 개인별 맞춤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맞춤형 쇼핑 환경을 구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퇴근 시간대 모바일 이용이 급증하면서 타임 마케팅도 강화되고 있다.

오픈마켓 11번가는 소비자 구매 패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급한 업무를 처리한 직장인과 오전에 집안일을 끝낸 주부들이 주로 구입하는 시간이 11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마케팅에 반영한 '쇼킹딜 11시'는 모바일 쇼핑 매출이 급증하는 11시를 공략해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동영상 정보를 제공한다.

G마켓의 큐레이션 쇼핑사이트 G9는 모바일 쇼핑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인 오전 9시, 오후 6시에 열리는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여지윤기자 yjy@metroseoul.co.kr

"보관만 잘해도 밥 맛이 좋다"

용기·쌀벌레 퇴치제 등 제품 다양

한국인의 주식 쌀을 구매할 때 가정에서는 품질 등을 깐깐하게 따진다. 하지만 구매한 쌀을 어떻게 보관하느냐도 중요하다. 쌀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할 경우 쌀에 수분이 증발돼 금이 가고 영양분이 손실되거나 찰기가 없어지며 맛이 변질될 수 있다. 또 쌀벌레와 곰팡이가 생기기도 쉽다.

이에 쌀을 보관할 수 있는 제품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용기부터 쌀벌레 퇴치제, 전용 냉장고까지 다양한 종류의 제품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

생활용품 브랜드 타파웨어가 출시한 슬림 라이스 키퍼(왼쪽 사진)는 쌀 외에도 잡곡을 위생적이고 깔끔하게 보관해주는 곡식 보관 용기다. 용량 조절 레버가 있어 1인분의 쌀을 덜어 원하는 분량만큼 밥을 짓는 것에 용이하다. 또 10kg 용량으로 대략 한달 분량씩 나눠 보관할 수 있고 현미, 찹쌀 등 다양한 곡식을 나눠 담아두기 좋다.

파세코의 쌀 냉장고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문화를 반영해 계절에 상관없이 보관해주는 전용 냉장고다. 쌀의 수분증발을 억제해 산화를 막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3단계의 온도설정 기능이 탑재돼 습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해준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 제품은 슬라이딩 인출방식으로 싱크대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전용 용기에 보관해도 쌀벌레 등 벌레가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 퇴치제를 함께 사용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

애경에스티의 홈즈 쌀벌레 방충선언(오른쪽)은 쌀 벌레를 퇴치해주는 제품으로 겨자추출물 등 미국 FDA에 등록된 100% 식품첨가물로 만들어져 인체에 무해하다. 쌀바구미, 화랑곡나방 등의 쌀벌레를 효과적으로 퇴치해주고 쌀 곰팡이 방지 성분이 함유돼 쌀을 신선하게 유지시켜준다. 이 외에 보리나방, 팥비구미, 콩바구미 등 잡곡 속에 서식하는 벌레를 퇴치하는 홈즈 방충선언 쌀벌레 잡곡용도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

롯데백화점, 봉제선 없는 '홀가먼트 니트' 선봬 롯데백화점은 12일 서울 중구 백화점 본점 일뮤트 컨셉스토어에서 '홀가먼트 니트'를 선보였다. 홀가먼트 의류는 봉제선이 없어 착용감이 좋고 안정적인 실루엣이 장점이다. /롯데백화점 제공

호텔 1박 주중 1300원, 주말 3900원?

베니키아 초특가 이벤트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가 운영 중인 토종 비즈니스 호텔체인 베니키아가 이달부터 4월까지 매달 13일 오후 1시에 초특가 이벤트를 실시한다.

체인호텔 중 우수 호텔로 선정된 서울 KP호텔과 부산 프레스호텔의 객실을 주중에는 1300원, 주말에는 3900원으로 예약할 수 있다.

또 관광공사는 이번 이벤트 외에도 매달 13일을 '베니키아 데이'로 지정하고 전북 채석강과 강원도 동해, 제주도 등 주요 관광지 소재의 체인호텔을 1만9900원부터 판매 중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

지산리조트, 전일 시즌권 1차 할인

지산포레스트리조트가 오는 15일까지 2014~2015 전일 시즌권 1차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시즌권 가격은 대인과 소인 구분 없이 정상 가격에서 30% 할인된 35만원이다. 또 다음 달 17일까지 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만 구매 가능하다.

단 커플권이나 가족권의 추가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황재용기자

겨울 피부 건조증 튼살로 이어져

보습제 바르고 물 많이 마시면 예방 가능

겨울철 피부 건조증 환자가 늘고 있다. 특히 피부 건조증이 나타난 후 체중이 늘면 튼살로 이어질 수 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과도한 난방기구 사용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든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면서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주로 허벅지나 복부, 팔과 다리 등에 많이 발생하며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다. 심해지면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진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피부 건조증은 피부의 가장 바깥 부분을 싸고 있는 각질층이 원인이다. 외부와 피부 사이의 장벽인 각질층은 피부가 일정한 수분을 함유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하지만 이 각질층이 건조한 환경의 영향으로 메마르고 피부 수분의 양이 적어지면서 피부 건조증이 발생한다. 아울러 움직임이 줄고 체중이 늘면 피부 건조증은 튼살로 발전한다. 튼살은 한 번 생기면 처음으로 회복이 되지 않아 예방이 최선이다.

피부 건조증을 막기 위해선 우선 목욕 후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야 한다. 또 가렵다고 긁는 것보다는 얼음을 비닐로 싸서 가려운 부위에 대는 것이 도움이 된다. 평소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피부 자극을 방지해야 하며 근력 운동을 통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살이 급격히 찌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권연숙 연세스타피부과 원장은 "피부 건조증과 함께 튼살이 생긴다면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고 피부재생 효과가 있는 비타민A 유도체 연고를 바르는 것이 좋다. 또 튼살은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튼살 자국이 고민이라면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잦은 신년회 '담석증' 부른다

지난해 12월부터 끊이지 않았던 송년회에 이어 신년회라는 이름의 회식과 술자리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알코올과 기름진 음식 섭취는 '담석증'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담석증은 담낭(쓸개)이나 담관 내에서 생겨난 결석으로 인해 염증이나 담관 폐쇄 등이 생기는 질환이다. 보통 간에서는 하루 1ℓ 정도의 액체 형태를 띈 담즙이 생성되는데 담즙은 담낭에 저장되거나 기름진 음식을 섭취한 경우 등 필요에 따라 십이지장을 통해 배출된다. 하지만 이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담즙이 굳어서 단단한 결석이 형성되면 담석증이 나타난다.

위쪽 배나 명치 부위에 통증이 있고 소화불량과 같은 더부룩한 느낌이 드는 경우 담석증을 의심할 수 있다. 또 오른쪽 옆구리 부분이 결리고 쑤시는 경우도 담석증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밀가루 음식이나 기름진 고기를 먹었을 때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담석증일 확률이 높다.

아울러 술과 각종 기름진 안주는 담석증을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 칼로리 함량이 높은 알코올을 고콜레스테롤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내장기관에 무리가 가기 때문이다. 게다가 담석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급성담낭염이나 담낭이 터지는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민상진 메디힐병원 원장은 "비슷한 복통이라도 원인에 따라 복부 질환의 종류와 치료법이 다르다. 따라서 개인적인 판단으로 소화제나 지사제 등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음주는 담석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평소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송태용기자 tsou@metroseoul.co.kr

라식·라섹, 병원만 믿으면 낭패

정확한 검사와 함께 아벨리노 각막이상증 확인 필요

라식·라섹수술이 대중화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안과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수술이 불가능한 사람이나 부작용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라식·라섹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소개한다.

먼저 라식이나 라섹수술 등 시력교정술은 각막 실질부를 절삭해 초점이 망막에 정확히 맺히도록 굴절도를 교정하는 수술이다. 따라서 수술 전 검사가 필수며 이를 바탕으로 교정시력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몸 상태에 따라 검사 결과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성장 중에 있는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로 일부 성장은 20세 이후까지도 성장을 지속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청소년들은 검사 전 최소 6개월간 시력의 변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임신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는 각막의 굴절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시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기도 하며 출산 후 시력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수술 후 사용하는 소염제와 항생제 등은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아벨리노 각막이상증 유전자를 보유한 경우는 라식·라섹수술 자체가 어렵다. 국내에서 870명당 1명 정도 발생하는 유전성 질환으로 서서히 각막에 흰 점이 생기면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된다. 만약 이 유전자를 확인하지 않고 수술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급격한 시력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

권영구 GS안과 원장은 "수술 전 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하지만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아벨리노 각막이상증은 흔한 유전성 질환이기 때문에 구강 상피세포를 통한 유전자 검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사무직 직장인 어깨는 괴롭다

과도한 업무와 잘못된 자세로 손상 우려

주로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어깨 근육 뭉침과 통증을 경험한다. 문제는 이런 어깨 이상이 회전근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어깨 근육이 뭉치거나 통증 등의 증상은 어깨에 수화기를 끼고 통화하거나 컴퓨터 앞에서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일할 때 나타난다. 또 야근 등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도 어깨에 악영향을 미친다.

보통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갑자기 충격을 받을 경우 회전근개 손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이와 같은 잘못된 습관과 많은 업무량도 그에 못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

만약 지속적으로 어깨가 아프거나 어깨 근육이 자주 뭉친다면 회전근개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또 회전근개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아울러 회전근개 손상을 예방하고 어깨 통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을 개선하거나 잘못된 자세를 수정해야 한다. 특히 마우스를 사용할 때 팔을 뻗은 채 조작하면 어깨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몸 가까이에 마우스를 두고 적당한 각도를 유지해야 한다. 손목을 받칠 수 있는 쿠션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어깨 스트레칭도 수시로 해야 한다. 어깨를 돌리거나 어깨뼈를 안으로 모으고 밖으로 벌려주는 동작만으로도 경직된 어깨 근육을 풀어줄 수 있다.

송병욱 날개병원 원장은 "직장에서의 반복적인 작업에 따른 과부하와 좋지 않은 자세로 근무하는 것은 어깨에 치명적이다. 어깨에 무리가 오면 회전근개 손상은 물론 노화가 빨라질 수 있어 평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위암 전복강경 위절제술' 안전성 입증

이주호 이대목동병원 교수, 세계 최초 연구 발표

이대목동병원은 '위암 대장협력진센터 이주호(사진) 교수팀이 위암 수술에서 전 수술과정을 복강경으로 시행하는 전복강경 원위부 위절제술'의 안전성을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복강경 원위부 위절제술은 위 박리와 림프절 절제 등 모든 수술과정을 복강경을 이용해 뱃속에서 시행하는 수술방법이다. 수술 난이도가 높지만 추가적인 상처가 없어 최소 침습 수술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그동안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드물었다. 이에 이 교수팀은 전복강경 원위부 위절제술의 유용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이대목동병원에서 위암 환자 110명을 무작위로 배정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전복강경 원위부 위절제술은 다른 수술과 비교해 수술시간과 수술 중 출혈량, 회복기간과 합병증 발생률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며 미용상으로도 우월했다.

한편 이 교수팀의 이번 연구는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Annals of surgical oncology' 최신호에 게재된 바 있다.

/황재용기자

metro entertainment E

"첫 주연 영화는 '4등' 광수… 길들여지지 않은 인물, 천 과장과 정반대"
'달빛요정과 소녀' 故 이진원의 노래로 꾸며… 진한 감동에 눈물 '찔끔'

▶▶ '잔뼈 굵은' 연극배우 박해준

"만남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별도 있다는 것을 알 나이가 됐어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미생'에서 원인터내셔날 영업3팀 천관웅 과장으로 열연한 배우 박해준(38)의 종영 소감이다. 이별이 있으면 새로운 만남도 있는 법. '미생'을 떠난 박해준은 2015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박해준은 2012년 영화 '화차'에 조연으로 출연하며 스크린에 데뷔했고 지난해 SBS 드라마 '닥터 이방인'에 북한 대남공작요원 차진수로 브라운관을 찾았다. 극단 차이무의 일원인 박해준은 그동안 연극무대에서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 온 잔뼈 굵은 연극배우다. '미생' 천과장으로 '대박'을 친 박해준의 올해는 더 바빠질 전망이다. 생애 첫 주연 영화 '4등'에서 수영코치 광수를 연기하고 뮤지컬 '달빛요정과 소녀'에서는 라디오DJ로 출연할 예정이다.

"'4등'은 정지우 감독의 영화예요. 광수는 아주 디테일한 성격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인물로 '미생'의 천과장과는 반대되는 인물이죠. 감독님도 독특한 스타일의 연출을 하는 분이라 기대가 됩니다. 뮤지컬 '달빛요정과 소녀'는 극단 차이무의 첫 뮤지컬 작품이에요. 故 달빛요정 역전만루홈런(이진원) 노래들로 꾸며집니다. 저는 라디오 DJ를 맡았고 악긴의 코러스를 부릅니다. '이게 뭐지?' 하고 봤다가 무겁게 다가오는 찐한 감동을 느끼실 겁니다. 눈물이 찔끔 나오는 작품이에요."

드라마 '미생'에서 박해준은 경력직으로 입사해 사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영업3팀에 합류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기존 출연자들과는 드라마 중반부터 호흡하게 됐다.

"처음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어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흘러온 흐름에 자연스럽게 묻어가기로 했죠. 제가 드러나지는 않아도 항상 거기 있었던 것처럼. 특히 워낙 영업3팀 인물들이 사랑받는 캐릭터들이라 피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연기했죠. 천과장은 내적 갈등이 많은 사람인데 그 심정을 유지한 채 그대로 있었어요."

박해준은 영업3팀의 기존 멤버인 이성민(오상식차장)·김대명(김동식대리)·임시완(장그래)과 좀 더 실제 같은 직장인 모습을 보이려 촬영 현장에서는 항상 식사를 함께했다. 반면 같이 먹었지 실제 직장인들처럼 회식을 못해본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명이가 먼저 '과장님 저희는 항심 같이 밥을 먹어요. 다음에는 과장님이 메뉴 선택을 해셔야 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같이 먹지 않다기 성민 선배가 진짜 직장인들처럼 같이 먹자고 제안을 했죠. 같이 회식을 못한 게 아쉬웠어요. 모든 것들이 다 리얼하게 보여드리기 위한 장치들입니다(웃음)."

극 중 천과장은 박해준의 말처럼 갈등이 심한 인물이다. 위로는 특별한 라인이 없고, 아래로는 후배들이 치고 올라온다. 경력직 입사자이기 때문에 동기도 없다. 쓸쓸하지만 능력을 인정받아 그럭저럭 회사에서 버티는 인물이다. 천과장은 오늘을 사는 진짜 직장인의 모습이었다.

"첫 촬영이 집에서 맥주 한 캔을 마시는 장면이었어요. 빈틈한 직장인으로 보이길 원했죠. 고된 일을 마치고 퇴근해 맥주 한 캔 마시는 모습이 직장인들의 비애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동정심과 공감을 일으키길 원했습니다."

'미생'의 인기를 뒤어내고 다시 스크린과 무대를 찾는 박해준에게 드라마·영화·연극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드라마·영화·연극은 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연극은 무대에서 관객들을 직접 만난다는 기대감이 있죠. 그동안 해왔던 것이라 마음도 편안하고요. 영화는 집중도 있게 작업할 수 있어 만족감이 크고 드라마는 시청자 반응을 알 수 있다는 점과 순발력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모든 장르가 쉬운 게 없습니다. 저는 베테랑이 아닙니다. 미치 구별없이 연기해야죠(웃음)."

/김학철기자 kimc@metroseoul.co.kr
사진/한준희자 디자인/서은지

star bag

권상우 3년 만에 스크린에

배우 **권상우**가 영화 '탐정'에 출연한다. 2011년 통증 이후 첫 한국 영화다.

천재적인 수사 감각을 지닌 괴짜 탐정 대만 역을 맡았다. 영화는 베테랑 노형사가 의기투합해 살인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을 그린 미스터리 수사물이다.

이유리 KBS 예능까지?

이유리가 14일 KBS2 예능프로그램 '두명인간' 게스트로 출연한다. '왔다! 장보리' 연민정보다 더 악랄해진 모습으로 예능감을 뽐낼 예정이다.

지난주 예고편에서 그는 "대상 유리라고 불러주세요"라며 출연진 6명을 제압해 기대감을 높였다.

이승철 목소리 '미생 과…

가수 **이승철**이 12일 정오 신곡 '배 널 수 있다'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노래는 엠넷 '슈퍼스타K5'에 출연했던 밴드 네이브로의 멤버 정원보가 무명시절 느꼈던 점을 바탕으로 만든 노래다. 뮤직비디오는 tvN 드라마 '미생' 영상이 쓰였다.

고아성·존 말코비치 '찰칵'

할리우드 진출을 선언한 배우 **고아성**이 할리우드 스타 **존 말코비치**와 다정한 인증샷을 찍었다.

존 말코비치는 최근 서울바로크합주단 창단 50주년 기념음악회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고아성은 미국 대사관 주최로 진행된 리셉션에서 존 말코비치를 만났다.

"절망 속 희망은 사람 사이의 믿음"

'이별까지 7일'로 내한한 이시이 유야 감독 "진지하게 가족과 정면으로 마주한 영화죠"

이시이 유야 감독

영화 '이별까지 7일'

/무비너스 제공

가족은 가까우면서도 먼 존재다. 늘 아무 일 없는 듯 함께 살아가지만 그 평온함은 때때로 진심을 숨겨야만 가능하다. 마음에 감춰둔 진심이 드러날 때 가족은 비로소 그 민낯을 나타낸다. 그것은 곧 사회의 '맨얼굴'이기도 하다.

이시이 유야(31) 감독의 7번째 장편 '이별까지 7일'(1월 15일 개봉)은 뇌종양 판정으로 죽음까지 1주일을 남겨둔 어머니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다.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버블경제 붕괴 이후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일본사회의 단면을 넌지시 바라보고 있다. 그 속에서 희망의 가능성을 길어 올리는 연출력이 돋보인다.

작가 하야미 가즈마사의 자전적인 소설 '이별까지 7일(원제 모래 위의 짐파리)'이 원작이다. 영화의 국내 개봉을 앞두고 지난 주말 한국을 찾은 이시이 유야 감독은 "학생 시절부터 가족이라는 테마로 영화를 만들어왔다"며 "그 동안 유사 가족의 이야기를 주로 그렸다면 이번에는 보다 진지하게 가족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영화 속에는 찌그러진 차가 한 대 등장한다. 아버지가 모는 토요타의 크라운이다. 버블경제 시대를 보내온 일본의 60대에게 성공과 동경의 대상이 됐던 차다. 그런 크라운이 찌그러진채 달리는 모습은 과거의 영광이 사라진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든 달려가는 일본 사회의 모습이 있다. 이시이 유야 감독은 "상처를 모른 척하면 차는 달릴 수 있다"며 "눈앞의 문제를 모른 척하면 된다는 것, 그것이 영화 속 가족이 직면한 현실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영화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다.

"저는 정치가도 사회 기업가도 비즈니스맨도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영화를 만들거나 비즈니스를 잘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것에 행복이 있지 않을까요?"

이시이 유야 감독은 2013년 발표한 '행복한 사전'으로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쓸었다. 30대 초반으로 서른을 갓 넘긴 나이에 이토록 성숙하면서도 섬세한 시선으로 가족과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놀랍다. 그는 "청춘은 나이와 관계없이 본인의 의지대로 끝낼 수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춘에 대한 유연한 태도처럼 영화에 대한 고민도 여전히 깊다.

"영화와는 우연찮게 인연이 닿았습니다. 살다보면 과거는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이 이야기가 됩니다. 앞으로 15~20년이 지나 중년의 아저씨가 된다면 그때 내 인생을 정리하면서 왜 감독이 됐는지 정리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전도연 올 개봉작만 3편 '독보적'

무협·멜로 등 장르도 다양…캐릭터 변신 시도

배우 전도연(사진)이 올해 3편의 영화로 독보적인 여배우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줄 전망이다.

전도연은 2013년 영화 '집으로 가는 길' 로 약 2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했다. 변함없는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은 그는 2014년 3편의 영화에 연달아 출연했고 올해는 이들 영화들의 연이은 개봉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먼저 촬영을 마친 영화는 박흥식 감독의 '협녀, 칼의 기억'이다. 고려 무신시대를 배경으로 세 명의 검객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뒤이어 촬영한 '무뢰한'은 형사와 범인의 여자로 만난 두 남녀의 피할 수 없는 사랑을 그린다. '킬리만자로'를 연출한 오승욱 감독의 신작으로 김남길과 호흡을 맞췄다.

현재 전도연은 배우 공유와 함께 핀란드를 무대로 금지된 사랑을 그리는 정통 멜로 '남과 여'를 촬영 중이다. '멋진 하루'의 이윤기 감독과의 재회로 화제를 모았다. 오랜만의 멜로영화 복귀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관계자는 "올해 전도연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는 단순히 영화 편 수가 많기 때문은 아니다"라며 "여성 캐릭터 중심의 영화가 적어 여배우의 설 자리가 좁아진 충무로의 현실 속에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택해 새로운 캐릭터에 도전하며 작품마다 여배우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병호기자

골든글로브 사로잡은 '아트버스터'

'보이후드'·'그랜드 부다페스트…' 작품상 수상

지난해 국내에서 아트버스터 영화 열풍을 일으켰던 '보이후드'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 제72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버리힐스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보이후드'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각각 드라마 부문 작품상과 뮤지컬 코미디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다.

'보이후드'는 '비포' 시리즈로 잘 알려진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작품이다. 한 소년의 성장기를 15년에 걸쳐 찍어 화제가 됐다. '보이후드'는 드라마 부문 감독상과 여우조연상(패트리샤 아퀘트)을 수상해 3관왕을 차지했다.

뮤지컬 코미디 부문 작품상을 수상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세계 최고 부호의 살인 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웨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로 국내에서도 지난해 3월에 개봉해 '아트버스터' 열풍에 불을 지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평생공로상을 수상한 조지 클루니는 파리 테러를 규탄하는 의미로 검은 턱시도에 '내가 샤를리다'라는 문구의 배지를 달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장병호기자

11일(현지시간) 미국 LA 베버리힐스호텔에서 열린 제72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드라마 부문 작품상 감독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영화 '보이후드'의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 /AP뉴시스

'빅 히어로' 21일 국내 개봉

'겨울왕국'에 이은 디즈니의 신작 애니메이션 '빅 히어로'(사진)가 오는 21일 국내 개봉을 확정했다.

'빅 히어로'는 천재 공학도 형제 테디와 히로가 만든 로봇 베이맥스가 가장 사랑스러운 슈퍼히어로로 거듭난다는 내용의 액션 어드벤처 영화다.

지난해 11월 북미 지역에서 먼저 개봉한 영화는 당시 전미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 개봉 10주차인 현재까지도 꾸준한 흥행세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도 개봉해 일본의 국민 애니메이션으로 불리는 '극장판 요괴워치'를 누르고 개봉 3주차에 1위를 탈환하며 막강한 흥행 저력을 입증했다. 현재까지 북미 지역 흥행 수익은 2억 달러, 전 세계 흥행 수익도 4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장병호기자

기자들만 아는
숨겨진 속 이야기!

매주 **수요일 밤 11시** E채널

신동엽 | 홍석현 | 김태현 | 김정민 | 레이디제인

모델 지이수 배우 신고식

KBS2 '착하지 않은 여자들' 출연

모델 지이수(사진)가 KBS2 새 수목극 '착하지 않은 여자들'로 배우 신고식을 치른다.

지이수는 '착하지 않은 여자들'에서 대학교수 정마리(이하나)의 제자 지경 역을 맡았다. 발랄한 여대생으로 극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지이수는 광고계에서 '걸임 없아러브'로 불리고 있는 소문난 '제셔니스타'다. 2011년 패션 위크에서 스타브제이앤코나의 쇼를 통해 모델로 데뷔한 후 김서룡·박승건·곽현주·진태옥 등 유명 디자이너들의 쇼에 오르며 활약했다.

그는 YG케이플러스 소속이다. 같은 소속사인 이성경은 지난해 SBS '괜찮아 사랑이야'를 통해 배우로 입지를 다진 바 있다. 지이수가 이성경의 뒤를 이을지 주목 받는 이유다.

YG케이플러스의 한 관계자는 "지이수는 연기에 재능이 있다"며 "첫 드라마에서 작은 역할을 맡았지만 패션 업계에서 주목을 받았던 만큼 연예계에서도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이수가 출연하는 '착하지 않은 여자들'은 3대에 걸친 착하지 않은 여자들의 사랑·성공·행복찾기를 담은 가족 드라마다. 내달 방송된다.

/권효정기자

온라인 핫 이슈

안재욱, 뮤지컬 배우 최현주와 '열애'

배우 안재욱(사진)이 뮤지컬 배우 최현주와 열애 중이다.

12일 안재욱의 소속사는 이날 오전 불거진 두 사람의 열애설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결혼설에 대해선 두 사람이 정식으로 교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르다고 설명했다.

안재욱과 최현주는 지난해 10월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에서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안재욱은 1994년 MBC 공채탤런트로 데뷔했다. 2011년부터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 중이다. 그는 '잭더리퍼' '태양왕' '황태자 루돌프' 등에 출연했다.

최현주는 이화여대 성악과를 졸업한 뒤 일본 극단 시키(四季)에서 활동하다 2009년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후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크리스틴 역을 시작으로 '몬테크리스토' '지킬 앤 하이드' '닥터 지바고'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입지를 다졌다. /정유진기자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아내 발언에 사과

배우 송일국(사진)이 매니저 임금 논란과 아내 정승연 판사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12일 송일국은 자신의 소속사를 통해 "며칠 전 아내의 페이스북 글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내의 적절하지 못한 표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했다.

이번 사건은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의 자신의 인턴을 아들 송일국의 매니저로 일하게 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여론이 들끓자 송일국의 아내 정 판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어디까지 자기들 좋을 대로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며 "그 매니저는 보좌관이 아니고 인턴이었다.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를 받고 스케줄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킨 것"이라며 "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 보험 따위 물론 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온라인에 삽시간에 퍼졌고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송일국은 사과문을 통해 "그 사람(인턴)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란 안이한 생각으로 일을 처리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공직자의 아들로서 좀 더 올바르게 생각하고 처신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김지민기자

올해 대세 걸그룹은 누구?

EXID·마마무·소나무 '3파전'

올해 가요계의 대세 걸그룹 자리 다툼은 EXID·마마무·소나무의 3파전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EXID는 지난 10일 KBS2 '뮤직뱅크'와 11일 SBS '인기가요'에서 1위를 차지하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위아래'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위아래'를 발표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마무리 하고 새 앨범 준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약 2개월 후 한 팬이 찍은 '직캠(팬이 직접 찍은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후 입소문을 탄 '위아래'는 온라인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차트 역주행'이라는 전기록을 세웠다. 음악 방송에서 보고 싶다는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결국 EXID는 지난해 연말 '강제 컴백'을 하게 됐다.

당시 EXID는 팬들을 위한 이벤트성 컴백이라고 밝혔지만 '위아래' 열풍은 좀처럼 식지 않았다. 인기는 올해까지 이어져 음악 방송 1위라는 쾌거를 차지했다. 현재 EXID는 음악 방송을 비롯해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자리 굳히기 중이다.

마마무는 10일 KBS2 '불후의 명곡' 첫 출연에 선배가수 경동하 홍경민을 제치고 2연승을 차지했다. 멤버 전원이 뛰어난 가창력을 자랑하는 마마무는 지난해 'Mr 애매모호'로 데뷔했다.

마마무의 가창력은 데뷔 전부터 음악팬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자자했다. 마마무는 정식 앨범 발표에 앞서 가요계 내로라하는 남성 보컬리스트인 케이윌·휘성 등과 호흡을 맞추며 범마마의 계보를 이을 여성 보컬 그룹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tvN '연애말고 결혼', SBS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등 드라마 주제곡을 부르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출격한 소나무는 데뷔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굵직한 성과를 거두며 올해 대세 걸그룹 자리를 노리고 있다.

이들은 데뷔 첫 주에 가온차트 앨범 판매량 주간 1위를 차지했다. 또 지난 10일엔 여의도 IFC몰에서 성황리에 팬 사인회를 개최하며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

소나무의 데뷔곡은 '데자부'다. 이들은 귀엽거나 섹시한 매력을 주로 앞세우는 걸그룹들 사이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데자부'로 음악팬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에너지 넘치는 칼군무가 이들의 주특기다.

/김지련기자 lunakim@metroseoul.co.kr

힙합 '1세대'와 '명품'의 이색 귀환

한국 힙합의 보석들이 연이어 앨범 발매 소식을 전하며 리스너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한국 힙합 1세대 DJ 렉스는 두번째 CCM 앨범 '페이지 2'를 선보였다. 'CCM의 힙합화'를 이끈 DJ 렉스(사진)는 이번 앨범에서 양동근·션·아웃사이더·버벌진트·스윙스·에픽하이·이센스 등 내로라하는 래퍼들과 함께했다. 아울러 강산에·김범수·바이브·박현종·남궁진과 같은 뮤지션들의 참여로 완성도를 높였다.

브랜뉴뮤직에서 진행한 '명예의 전당' 프로젝트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인피닛플로우는 8년 만에 돌아온다. 옛 동지 정기고를 비롯해 한국 힙합 씬 최고의 DJ로 손꼽히는 소울스케이프가 피처링으로 참여한다. 정기고는 인피닛플로우 1집 '리스펙트 유'의 객원 보컬이기도 했고 DJ 소울스케이프는 10년 전 인피닛플로우의 앨범을 프로듀싱했다. /김학철기자

이정현·황정음·오연서 공통점은?

가수 출신 주연 배우… 삼색 매력으로 1월 안방 장악

MBC '무한도전-토토가'로 테크노 여전사의 저력을 보여준 이정현, 어유미·박수진과 그룹 슈가로 활약한 황정음, 그룹 러브에서 전예인과 활동한 오연서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1월 드라마 주연 배우로 시청자와 만나며 가수 출신 배우들은 연기를 못한다는 편견을 깨고 호평을 받는 중이다.

이정현은 SBS 주말극 '떴다 패밀리'에서 사고치는 오빠 때문에 변호사를 사칭한 나준희 역을 맡았다. 봉금순 여사(박원숙)의 200억원 재산을 탐내는 시가문 신세가 돼 유산 쟁탈전에 합류한다. 절제된 코믹연기로 극의 무게 중심을 잡고 가짜 변호사 신분을 들킬까 봐 안절부절 못하다가도 똑부러지는 말투와 표정으로 역할을 해낸다.

황정음은 MBC 수목극 '킬미,힐미'에서 오버 코믹 연기로 웃음을 자아낸다. 차도현(지성)의 비밀 주치의인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 1년 차 오리진으로 분했다. 청순 가련한 외모와 달리 지저분하다. '지붕 뚫고 하이킥'(2009) 캐릭터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정현 황정음 오연서

이에 대해 황정음은 "이제는 '하이킥' 만의 황정음이 아니다"며 "그때는 26살이었는데 지금은 32살이다. 얼굴부터 다르다. 내공이라고 말하기 부끄럽지만 예전보다 향상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차별화된 연기를 각오했다.

오연서는 MBC 새 월화극 '빛나거나 미치거나'로 '왔다 장보리' 열풍을 이어간다. 발해의 마지막 공주 신율 역을 맡았다. 고려의 황자 왕소(장혁)의 연인인 신율은 다른 나라의 빛이 될 운명 때문에 죽음을 마주해야 했던 비운의 인물이다. 그러나 당차고 밝은 모습을 지녀 거대 상단 '청해상단'의 실질적 운영자이기도 하다.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모습으로 극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오는 19일 첫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강예원 엠버 이지애

강예원·엠버·이지애 군 입대

'진짜사나이' 여군 특집 '혹한기 서바이벌'

배우 강예원, 에프엑스 엠버, 방송인 이지애가 12일 군입대했다.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진짜 사나이'(이하 '진짜 사나이') 여군특집 2탄이 촬영을 시작한 것이다.

MBC 측은 "12일 오전 '여군특집2' 멤버들이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4박5일 일정으로 입소해 촬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여군특집2'는 지난해 '여군특집1' 인기에 힘입어 다시 기획됐다. 당시 방송은 그룹 걸스데이 혜리를 국민 애교녀로 등극시키며 큰 화제를 모았다.

시즌2 멤버는 강예원·엠버·이지애 이외에도 배우 김지영·박하선·이다희, 개그우먼 안영미, 애프터스쿨 윤보미 총 8명이다.

특히 윤보미·엠버는 각각 혜리·헨리를 연상하게 한다.

제작진은 "태권도 공인 3단인 괴력 소녀 윤보미는 군통령 자리를 놓고 '여군특집1' 혜리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고 했고, "엠버는 미국 국적 중국인이다. '진짜 사나이' 멤버 헨리의 추천이 영향을 끼쳤다. 헨리가 4차원이라면 엠버는 16차원 급 엉뚱함을 보여준다"고 섭외 배경을 전했다.

'여군특집2'에선 계절 배경이 겨울이라는 게 관전 포인트다. 김민종 PD는 기획단계부터 '혹한기 서바이벌'을 콘셉트로 했다.

김 PD는 "훈련 강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시즌1에서 볼 수 없었던 훈련 장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출연진도 훈련 종류와 구체적인 내용을 궁금해했다"며 "강한 정신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훈련 중 퇴소 당할 수 있다"고 덧붙여 기대감을 높였다.

'진짜 사나이-여군특집2'는 오는 25일 첫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하재숙 천방지축 고등학생 '변신'

배우 하재숙의 무한 변신이 화제다.

하재숙은 SBS 새 주말극 '내 마음 반짝반짝'에서 고등학생 전은비 역을 맡았다.

전은비는 부잣집 딸로 태어나 모자랄 것 없이 자란 캐릭터다. 현실 감각이 없는 말썽꾸러기이기도 하다.

하재숙은 교복을 입고 사과 모양 헤어스타일을 연출해 전은비의 천방지축 캐릭터를 표현했다.

특히 11일 종영된 SBS '미녀의 탄생' 사금란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사금란은 전신 성형을 한 사라(한예슬)의 이전 인물이다. 하재숙은 종방에서 남편에게 버림받는 사금란의 심경을 실감나게 연기해 시청자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하재숙의 변신이 기대되는 '내 마음 반짝반짝'은 치킨으로 맺어진 두 집안의 성공과 성장을 이야기한다. '며느리 전성시대' '솔약국집 아들들'을 집필한 조정선 작가 '어 내의 유혹' 오세강 PD가 연출을 맡는다. 오는 17일 오후 5시55분 방송된다.

SBS 새 주말극 '내 마음 반짝반짝' 하재숙 /가족액터스 제공

/전효진기자

고은성 뮤지컬 '가야십이지곡' 출연

신예 고은성(사진)이 뮤지컬 '가야십이지곡'에 출연한다.

'가야십이지곡'은 가야금 유래에 등장하는 우륵과 니문의 이야기에 소울이라는 가상 인물을 추가 설정해 만든 창작극이다. 529년 백제와 신라 경계에서 이름 없이 사라진 작은 나라를 배경으로 한다.

고은성은 '가야십이지곡'에서 규주려 죽은 누이를 먹은 자괴감에 시달리던 전쟁 고아 니문 역을 맡았다. 그는 2011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해 '체임' '스펠링비' '비스티보이즈' '그리스' 등에 출연하며 여성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가야십이지곡'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해 우수 창작 작품을 지원하는 2014 창작 뮤지컬 시범공연에 선정되기도 했다. 오는 24일~내달 1일 아트원씨어터 2관.

/전효진기자